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light gray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The logo is circular,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at the top and "제주대학교" at the bottom. In the center, there is a stylized flame or flower shape in blue, green, and purple, with a book icon and the text "JEJU 1952" below it.

碩士學位論文

<孔雀東南飛> 難句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宋 仁 姝

2011年 8月

<孔雀東南飛> 難句 研究

指導教授 林 東 春

宋 仁 姝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 年 6月

宋仁姝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李 滢 鎬 ㉠

委 員 林 東 春 ㉠

委 員 趙 成 植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6月

目次

I. 序論	1
1. 既存의 研究	2
2. 研究 目的과 方法	5
II. 難句 研究	6
1. 既存의 難句	6
1)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	6
2) 君既為府吏 守節情不移	8
3) 新婦初來時 小姑始扶牀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	9
4) 雞鳴外欲曙 新婦起嚴妝 著我繡袂裙 事事四五通	10
2 新生 難句	10
1) 結髮共枕席	11
2) 留待作遺施	14
3) 好自相扶將	19
4) 舉手長勞勞	23
5) 尋遣丞請還 說有蘭家女	27
6) 諾諾復爾爾	31
7) 交廣市鮭珍	34
8) 因求假暫歸	37
9) 君爾妾亦然	41
10) 恨恨那可論	45
III. 結論	49
參考文獻	52
IV. 附錄	55
孔雀東南飛 解釋	55

Study of Difficult Phrases in *Kongque dong nan fei*

Song, In Ju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Kongque dong nan fei* attracted people's attention years ago, most of the studies on *Kongque dong nan fei* have been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difficult phrases. New research sometimes raise objections to previous research, thus, there is the constant reinterpretation of the same difficult phrases. Searching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difficult phrases is the foundation to studying foreign literature. To truly understand the *Kongque dong nan fei*, the study of difficult phrases in *Kongque dong nan fei* should continue.

In Korea, there are researches on the difficult phrases in *Kongque dong nan fei*; however most of the interpretations and explanations are similar because concurrent researches affect and influence each other. Furthermore, there are incomplete interpretations due to hard to understand parts and problems connecting plots.

This paper examined and compared various existing theses, and interpreted materials of both Korean and Chinese scholars. Difficult phrases are defined as phrases that scholars interpreted differently and phrases that have not been thoroughly researched but can be valuable interpretations from a new point of view. Ten phrases were selected as difficult phrases. These phrases have not been studied in Korea, thus, their interpretations

are from a new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acilitate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Kongque dong nan fei*. It is written in the hopes that further studies beyond the ten phrases included here will be completed on the *Kongque dong nan fei*.

I. 序論

<孔雀東南飛>는 後漢 建安年間に 產生한 樂府詩로 淸 王世貞은 《艺苑卮言》에서 “長詩之聖”이라고 하고 있고¹⁾, 淸 沈德潛의 《古詩源》에서는 “古今第一首長詩”라고 평가 하고 있는²⁾ 中國文學史上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장편서사시이다. 徐陵(公元 507-583)의 《玉臺新詠》에 최초로 수록되었는데 작자는 무명씨이며 제목은 <古詩爲焦仲卿妻作>이라고 되어있다. 이 詩는 小序 10句, 53字와 본문 총 357句, 1785字로 이루어져있다. 北宋 郭茂倩의 《樂府詩集》에는 <焦仲卿妻>라는 제목으로 수록 되어 있다.

《玉臺新詠》의 小序에

漢末建安中，廬江府小吏焦仲卿妻劉氏，爲仲卿母所遣，自誓不嫁，其家逼之，乃沒水而死，仲卿聞之，亦自縊于庭樹，時人傷之，爲詩云爾

한말 건안 중에 廬江府의 말단 관리 焦仲卿의 처 劉氏는 焦仲卿의 어머니에 의해 쫓겨난다. 그녀는 스스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 그의 집에서 그녀를 핍박하여 결혼을 시키려하니 이내 물에 뛰어 들어 죽었다. 仲卿은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뜰 안의 나무에 목을 매어 죽는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애처로이 여겨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었다.

라고 하였는데, 이 記錄을 보면 <孔雀東南飛>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題材로 한 작품이라는 것과 창작 年代(漢末建安中), 주요 등장인물(焦仲卿妻, 仲卿母, 仲卿), 작자(時人)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시는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劉蘭芝가 시어머니의 逼迫을 받고 自發的으로 離婚을 제기하고, 焦仲卿은 어머니에게 관용을 간청하지만 책망만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 두 번째 단락은 劉蘭芝가 친정에 돌아온 뒤 縣令과 太守의 아들의 請婚을 받게 되고 劉兄은 劉蘭芝에게 再嫁할 것을 강요를 한다. 劉蘭芝는 焦仲卿과의 약속을 지

1) 李杏林 編著, 《孔雀东南飞研究》, 安徽大学出版社, 2009年6月, p3 재인용

2) 张永鑫, 《汉乐府研究》, 江苏古籍出版社, 1992年 6月, p188 재인용

키기 위해 縣令 아들의 청혼은 거절하였지만 오빠의 강요에 결국 太守 아들과의 결혼을 승낙하게 된다. 세 번째 단락은 劉蘭芝가 結婚 한다는 소식을 듣고 焦仲卿이 황급히 劉蘭芝를 찾아온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을 영원히 지킬 방법은 죽음뿐임을 생각하고 黃泉으로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한다. 劉蘭芝는 結婚하는 날 저녁에 물에 뛰어들어 죽고 焦仲卿은 목을 매어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悲劇적으로 막을 내린다.

孔雀東南飛는 “古今第一首長詩” “長詩之聖”이라는 매력 외에 작품 속에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서 漢代 樂府詩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필자는 孔雀東南飛를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論文과 책자들을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解釋本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解釋을 하고 있어서 이 해석본들을 보면 作品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본 논문을 썼다.

1. 既存의 研究

현재까지 <孔雀東南飛>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李浚植의 <先秦兩漢敘事詩研究>³⁾에서 <孔雀東南飛>의 작품 해석과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劉承炫도 <漢代樂府民謠와 三曹 樂府詩 비교 연구>⁴⁾에서 작품해석 및 그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權赫錫은 《玉臺新詠 I - 고대 중국의 여성 독자를 위한 사랑의 노래》⁵⁾에서 작품해석과 간단한 해설을, 金學主는 《樂府詩選》⁶⁾에서 작품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외의 중국의 해설서로는 刘允声, 彭格人的 《古诗文译注》⁷⁾가 있고,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 등이 합편한 《历代叙事诗赏析》⁸⁾과 王

3)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4) 劉承炫, <漢代樂府民謠와 三曹 樂府詩 비교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5) 서릉(徐陵)엮음/ 권혁석(權赫錫) 옮김, 《옥대신영 I - 고대 중국의 여성 독자를 위한 사랑노래》, 소명출판사

6) 金學主, 《樂府詩選》, 明文堂, 2002년, 4월

7) 刘允声, 彭格人 合編, 《古诗文译注》, 中国农业机械出版社, 1984년 6월

8)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 《历代叙事诗赏析》, 安徽文艺出版社, 2001년 1월

运熙, 王国安의 《汉魏六朝乐府诗评注》 9), 邓魁英, 韓兆琦 等の 《汉魏南北朝诗选注》 10), 그리고 吴德新的 《乐府诗 历史》 11)에서도 상세한 注釋을 볼 수 있고 그 외의 여러 서적들에서도 <孔雀東南飛>에 대한 상세한 注釋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문학논문으로서는 難句 해석과 더불어 문학적인 면이 연구된 것으로, 安正燠은 <孔雀東南飛의 ‘孔雀’에 관한 斷想>¹²⁾에서 <孔雀東南飛>의 제목이자 첫 句인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에 담겨진 의문점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孔雀”이라는 詩語가 가지는 문학과 이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金光照는 <孔雀東南飛研究-作品解釋에 대한 몇 가지 小考>¹³⁾에서 작품 해설 및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 句가 蘭芝, 仲卿의 故事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한 작품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 “華山畿”라는 지명과 기타 說話의 混入 可能性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難句 연구가 빠진 순수문학 연구물도 있다. 金庠濤는 <漢代樂府民歌研究>¹⁴⁾에서 <孔雀東南飛>의 장르상 특성 즉 서사물의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다. 嚴貴德은 <孔雀東南飛研究>¹⁵⁾에서 詩의 서사 구조를 고찰하고, 詩가 내포하고 있는 社會의 樣相, 人物의 性格 및 그 創造方法, 視點과 時間, 詩語의 位相을 考察하고 있다. 金貞順은 <孔雀東南飛의 人物 形象 研究>¹⁶⁾에서 <孔雀東南飛>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형상을 작품 속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분석하고 <孔雀東南飛>와 같은 유형의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李智海의 《孔雀东南飞故园拾穗》¹⁷⁾에는 <孔雀東南飛>의 창작 배경 및 기타, <孔雀東南飛>가 쓰여진 연대 및 成詩 과정, 이 詩 연구의 급선무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내용, <孔雀東南飛>에서 엿볼 수 있는 漢代 혼인 習俗 등의 내용이 실려져 있으며, 李杏林가 編著한 《孔雀东南飛 研究》¹⁸⁾에는 역사적

9) 王运熙, 王国安, 《汉魏六朝乐府诗评注》, 齐鲁书社, 2000, 10

10) 邓魁英, 韓兆琦 等, 《汉魏南北朝诗选注》, 第455页, 北京出版社, 1981年 2月 第1版

11) 吴德新, 《乐府诗 历史》, 重庆出版社, 2006年 3月

12) 安正燠, <孔雀東南飛의 ‘孔雀’에 관한 斷想>, 중국소설논총, 제26집 73p ~ 92p

13) 金光照, <孔雀東南飛研究-作品解釋에 대한 몇 가지 小考>, 해군사관학교 연구보고, 제13집, (1980. 8)

14) 金庠濤, <漢代樂府民歌研究 >, 서울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3年 4月

15) 嚴貴德, <孔雀東南飛 研究>,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986

16) 金貞順, <孔雀東南飛의 人物 形象 研究>, 大邱 가톨릭 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碩士學位論文 2004年 2月

17) 李智海, 《孔雀东南飞故园拾穗》, 安徽大学出版社, 2008年 5月

지위 및 문학적 가치, 언어의 특색, <孔雀東南飛> 시대의 節烈觀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실려 있다.

이외에 安東煥은 <孔雀東南飛에 반영된 漢代의 生活習俗>¹⁹⁾에서 <孔雀東南飛>에 나타난 漢代 사회의 생활 습속을 크게 6가지(婦女의 教育, 治粧習俗, 歲時習俗, 養蠶과 織布, 婚姻習俗, 葬禮習俗)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孔雀東南飛에 대한 연구물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중의 하나는 難句의 해석에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연구물들과 한국의 일부 논문은 아예 전체를 難句 研究에 할애하고 있다.

李浚植은 <樂府詩 孔雀東南飛의 難句 解釋에 관한 考察(2)>²⁰⁾에서 “君既為府吏 守節情不移” 그리고 “雞鳴外欲曙 新婦起嚴妝 著我繡袂裙 事事四五通”句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그는 또 <孔雀東南飛 新婦初來時 4句 解釋考>²¹⁾에서는 “新婦初來時 小姑始扶床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의 論文들을 보면 林廉²²⁾은 <孔雀东南飞的几处注释>에서 “卻與小姑別” ‘新婦初來時 小姑始扶床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 “蒲葦初如絲”, “故作不良計”句에 대한 새로운 注釋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新婦初來時 小姑始扶床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句에서 “小姑始扶床(시누이는 겨우 침대를 잡고 설 정도였는데)”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扶床”은 고대의 일종의 禮節로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의자를 옮겨와서 앉게 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문안 인사 드리는 기본예절을 “扶床”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는 10세 정도의 연령을 말하며 이는 곧 성년이 된다는 뜻으로 뒤의 ‘如我長’句와 연결해 모순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故作不良計’句에서 “故”字를 “고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고 “故”字는 “당초”, “不良計”는 “시어머니가 劉蘭芝를 쫓겨낸 것”을 의미 한다고 말하고 있다. 田有成 은 <孔雀东南飞注商>²³⁾에서 “紅羅複斗帳” ‘府吏見丁寧’句 그리고 <孔雀東南飛>에 자주 등장하는 “相”字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謝政偉는 <关于孔雀东南飞的两处 注释>²⁴⁾에서 “今日違

18) 李杏林, 編著, 앞의 책

19) 安東煥, <孔雀東南飛에 반영된 漢代의 生活習俗>, 중국인문과학, 제32호 (2006. 6)

20) 李浚植, <孔雀東南飛의 難句 解釋에 관한 考察(2)>, 中語中文學, 제31집 (2002. 12) pp137-157

21) 李浚植, <孔雀東南飛 ‘新婦初來時’ 4句 解釋考>, 中國學研究, 제25집 (2003. 9) pp41-58

22) 林廉, <孔雀东南飞的几处 注释>, 语文建设, 1996年 第10 期

23) 田有成, <孔雀东南飞注商 (四则)>, 河南省镇平县教师进修学校, 2003年 第 2期

情義 恐此事非奇”句중의 “非奇”字에 대해, <孔雀东南飞注释 拾补>에서는²⁵⁾ “生人作死別 恨恨那可論”句에서 “恨恨”을 “恨이 극도로 달하다.”라는 기존의 해석에 반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王昱新은 <孔雀东南飞注释商榷>²⁶⁾에서 “勤心養公姥 好自相扶將”句에서 “相”字 그리고 “卿但暫還家 吾今且報府”句에서 “暫”字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고 또 “君既為府吏 守節情不移 賤妾留空房 相見長日稀”句에서 “守節”의 주체를 劉蘭芝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여러 구에 대한 새로운 註釋도 제시 하고 있다.

상술한 <孔雀東南飛>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물들이 難句의 해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難句의 해석이 시도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직접 기존의 해석서들을 살펴 본 결과, 이미 제기된 문제점 외에도 상당한 부분에 걸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뜻이 통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研究 目的과 方法

기존의 연구에서 難句 해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異見이 존재하며 한국의 해석본과 여러 논문에서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필자는 해석이야말로 외국문학연구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에서 최근에 발행된 책자들과 論文들을 모아 우리나라 해석본들과 일일이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과 우리나라 해석이 서로 다른 구를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발간된 <孔雀東南飛>에 관련된 書籍 5권²⁷⁾을 선정하고 그 書籍의 註釋 및 解說 부분에서 학자들이 각각 다르게

24) 谢政伟, <关于孔雀东南飞的两处 注释 : “奇”“何云” >, 安徽蚌埠学院, 2006年 第10期

25) 谢政伟, <孔雀东南非 注释拾补, “恨恨”“行人”“寡妇”>, 安徽省蚌埠学院, 语文建设 2008年 第1期

26) 王昱新, <孔雀东南飞 注释商榷>, 中学文史论坛, 贵州文史丛刊, 1996年, 02期

27)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历代叙事诗赏析》安徽文艺出版社, 2001年 1月

王运熙, 王国安《汉魏六朝乐府诗评注》齐鲁书社, 2000年 10月

李智海《孔雀东南飞故园拾穗》, 安徽大学出版社, 2008年 5月

郭茂倩《乐府诗集》, 万卷出版公司, 沈阳市, 2009年 3月

李杏林 编著《孔雀东南非》研究, 安徽大学出版社 2009年6月

解釋하고 있는 부분들과 논의는 빈번하지 않았지만 難詞로 인하여 다른 각도에
서 해석을 해 볼 가치가 있는 句節을 難句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難句로 정의되어 연구된 것 외의 10句를 難句로 규정하고 새로운
解釋을 시도해 보려 한다.

<孔雀東南飛>의 본문은 관본에 따라 句數의 증감이 있는데 “新婦初來時 小姑
始扶床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 부분에서 宋本 《玉臺新詠》이나 宋元刻本 郭茂倩
의 《樂府詩集》 등에는 4句중에서 중간 2句가 빠진 채 “新婦初來時 小姑如我長”
으로 되어있고 元 左克明의 《古樂府》에 처음으로 이 4句가 등장한다. 최근의 연
구물에서는 대부분 左克明의 《古樂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한 서사를 위한 듯하다. 그래서 필자도 이를 저본으로 한 《历代叙事诗赏
析》²⁸⁾중의 <焦仲卿妻>를 본 논문의 텍스트로 삼았다.

II. 難句 研究

1. 既存의 難句

지금까지 孔雀東南飛 難句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서는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국
내 연구는 李浚植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우선 아래 부분에서 既存의 難句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난 후 필자가 선정한 新生 難句 10句를 고찰해 보도
록 하겠다.

1)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²⁹⁾

28)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 《历代叙事诗赏析》, 安徽文艺出版社, 2001年 1月

29) 田寶玉, <中國 敘事詩의 故事 成立 背景 考察>, 중국어문학논집, 1998년, pp25-46 요약

<孔雀東南飛>의 첫 두 구절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는 중국 詩歌의 比興의 수법이라고 말 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두 구절은 부부의 이별을 읊을 때 詩 속 에 자주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句와 연관된 내용의 詩 구절을 발생 연대순 으로 고찰하고 있다. 먼저 《太平御覽》 卷826 織部에 古艷歌의 殘文에 “孔雀東飛 苦寒無衣 爲君作妻 中心惻悲 夜夜織作 不得下機 三日載疋 尙言吾遲” 라는 내용이 詩 첫머리에 등장하고 ‘君의 妻’가 된 여주인공이 밤마다 베틀에 올라 옷감을 짜 면서 삼일에 한 필씩 완성하지만 그래도 일하는 속도가 늦다고 꾸중을 듣고 시 름에 잠기는 내용이다. 이는 <孔雀東南飛> 첫 단락인

“孔雀東南飛(공작동남비) : 공작이 동남으로 날다가
 五里一徘徊(오리일배회) : 오리에 한 차례 배회 하네
 十三能織素(십삼능직소) : 13살에 흰 비단 짤 수 있었고
 十四學裁衣(십사학재의) : 14살에 옷 재단하는 것을 배웠고
 十五彈箏篋(십오탄공후) : 15살에 공후를 탔으며
 十六誦詩書(십육송시서) : 16살에 시경과 서경을 암송했으며
 十七爲君婦(십칠위군부) : 17살에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心中常悲苦(심중상비고) : 마음속에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웠어요
 君既爲府吏(군기위부리) : 당신은 부리가 되시고
 守節情不移(수절정불이) : 부리의 법도를 지키며 정에 이끌리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賤妾留空房(천첩류공방) : 저는 빈방에 홀로 남아
 相見長日稀(상견장일희) : 오래도록 서로 만나는 날이 드물었지요.
 雞鳴入機織(계명입기직) : 닭이 울면 베틀에 들어 비단을 짜느라
 夜夜不得息(야야불득식) : 밤마다 쉴 수도 없었습니다
 三日斷五匹(삼일단오필) : 삼 일간에 다섯 필의 비단을 끊어도
 大人故嫌遲(대인고혐지) : 시어머님은 고의로 늦다고 불평하십니다
 非爲織作遲(비위직작지) : 짜는 것이 늦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君家婦難爲(군가부난위) : 당신 집의 며느리 노릇하기가 힘들었지요
 妾不堪驅使(첩불감구사) : 저는 어머니의 부림을 감당할 수 없어
 徒留無所施(도류무소시) : 공연히 머물러도 쓸모가 없지요
 便可白公姥(변가백공모) : 바로 시어머님께 말씀 드려서
 及時相遣歸(급시상견귀) : 적당한때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네

라는 부분과 내용이 거의 같다. 그러므로 古艷歌는 <孔雀東南飛>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가진 詩가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가능하게 하며 古艷歌 내용만이 원래 <孔雀東南飛>의 내용이었고 그 후에 민간에 焦仲卿과 劉蘭芝의 이야기가 전래되면서 부부간의 이별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 요소가 만나서 자연스레 하나의 詩로 탄생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曹丕의 <臨高臺> 등에도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3세기 초 작품이라 알려진 蘇武의 詩 한 수를 보면 “黃鵠一遠別, 千里願徘徊. 願爲雙黃鵠, 送子俱遠飛³⁰⁾” 라는 구절이 나온다.

위의 내용들로 봤을 때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 이 구절은 민간에서 전해지던 황곡새 부부에 관한 민가에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焦仲卿 부부의 이별에 대해 장편의 서사를 시작하는 첫 부분으로 삼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이별을 읊을 때 이용되며 비참하게 헤어지는 부부의 이별을 노래할 때 이 이야기가 詩 속에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 <孔雀東南飛>에서는 劉蘭芝와 焦仲卿이 안타까운 이별을 형상화하기 위해 노래의 제일 앞에 상징적으로 “孔雀東南飛, 五里一徘徊”의 구절을 등장시켜 전체의 詩의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2) 君既為府吏 守節情不移³¹⁾

이 구절의 해석은 守節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焦仲卿의 부리로서의 守節(臣節)이며 다른 하나는 劉蘭芝의 아내로서의 節操(婦節)로 보는 견해다. 臣節로 본다면 이 句는 “당신은 부리가 되어 벼슬아치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하며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句를 婦節로 본다면 “그대가 비록 부리가 되었지만 저는 아내로서의 절조를 지키며 감정이 동요되지 않았다.”로 해석된다.

30) 《文選》卷29 <蘇子卿 詩四首>, 413쪽, 臺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田寶玉, 앞의 책, pp25-46 재인용

31) 李浚植, <孔雀東南飛>의 難句 解釋에 관한 考察(2)>, 中語中文學, 제31집 (2002. 12) pp137-157 요약

이 해석은 “제가 박복한 팔자지만 다행히 이 여자를 얻어 부부가 되었으니 황천까지 벗어날 것입니다”라는 4句와 전후 호응하여 여주인공의 “부귀, 귀천, 권위를 추종하지 않는(富貴不能淫 貴賤不能移 威武不能屈)” 숭고한 品德을 나타내며 죽음으로써 재혼을 거절하는 詩 후반에 대한 복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설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석서 대부분이 臣節說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설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며 국내의 해석본 역시 예외 없이 이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3) 新婦初來時 小姑始扶牀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³²⁾

“新婦初來時 小姑始扶牀 今日被驅遣 小姑如我長” 이 4句는 온전하게 4句가 들어 있는 서적이 있는 반면 中間의 2句가 빠져있는 서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 초점은 中間 2句를 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4句를 모두 인정하느냐이다. 中間 2句를 빼는 것은 詩意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하는지 詩意의 중복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고 4句를 모두 인정한다면 이 부분을 과장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건이 되는 “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것인지 규명하고 있다. 이 句에서 中間 2句를 생략해서 해석하면 “신부인 제가 처음 왔을 때, 아가씨는 저만큼 장성해 있었지요.” 라고 해석 할 수 있는 것이고 中間 2句를 삽입하여 이 부분을 온전한 4句로 인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신부인 내가 처음 왔을 때 아가씨는 겨우 침상을 잡고 일어섰는데, 오늘 쫓겨나게 되매 아가씨 나만큼 자랐군요.”로 해석이 된다. 이 문장에서는 실제의 결혼 생활은 2,3년 이상이지만 난지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지나치게 짧은 타인의 2,3년 정도의 결혼 생활에 버금갈 뿐이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의 해석을 통례적으로 단순과장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부분을 과장법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용되는 이유는 4句의 의미 연결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분에서 난지가 과장하려고 한 의도도 분명하다. 우선 자신의 부재 시 시모를 봉양할 시누이의 위상과 능력을 확인시켜준다는 의도가 있고, 이외에도 시누이가

32) 李浚植, <孔雀東南飛 ‘新婦初來時’ 4句 解釋考>, 中國學研究, 제25집 (2003. 9) pp41-58 요약

자신만큼 장성하였으므로 해서 자신의 불공평한 축출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발로일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석서가 이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4) 雞鳴外欲曙 新婦起嚴妝 著我繡袂裙 事事四五通³³⁾

이 4句에 대한 기존 주석서의 일반적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닭이 울어 가야흐로 동이 틀 무렵, 신부는 일어나 성대하게 치장한다. 수놓은 겹치마 입는데도 너댓 번씩 반복한다.” 로 해석이 가능하며 그 다음으로 “닭이 울어 가야흐로 동이 틀 무렵, 신부는 일어나 치장한다. 수놓은 겹치마를 입고 매 동작을 너댓 번씩 반복한다.” 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事事四五通의 事事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가이다. “事事”에 대한 해석에서는 事事四五通의 句가 치마 입기 한 동작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치장행위 전반을 개괄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예를 들어가면 고찰하고 있는데 국내의 연구자들은 모두 事事를 치마입기 한 동작만 으로 보고 있다.

2. 新生 難句

<孔雀東南飛>의 難句에 대한 연구가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孔雀東南飛>해석 중 학자들이 각각 다르게 解釋 하고 있는 부분들과 논의는 빈번하지 않았지만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을 골라 難句로 정의하고 작품 중간에 나오는 10句를 선정, 중국과 우리나라 서적 및 논문 자료들을

33) 李浚植, <孔雀東南飛의 難句 解釋에 관한 考察(2)>, 中語中文學, 제31집 (2002. 12) pp137-157 요약

참고하여 難句를 고찰해 보겠다.

1) 結髮共枕席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27번째 句로 이 부분은 劉蘭芝가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친정으로 보내 달라고 하소연 하자 焦仲卿이 어머니를 찾아가 劉蘭芝를 두둔하고 있는 부분의 句이다.

이 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結髮’의 의미이다. 結髮의 의미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해석들은 “성년이 되어서 束髮하는 의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金學主는³⁴⁾ 이 句를 “장가들어 잠자리 함께하며”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結髮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譯註하고 있다.

옛날에는 남자는 20세가 되면 머리를 묶어 올리고 冠禮를 행한 다음 장가를 들 수 있고, 여자는 15세가 되면 머리를 묶어 올리고 行笄禮(행계례)를 행한 뒤 시집 갈 수 있었다. 따라서 結髮은 어른이 된 것, 또는 오래되지 않음을 뜻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李智海는³⁵⁾ 이 부분에 대하여

古时，人在少年时将头发下披；男到 20岁，女到 15岁时，要把头发束起来，提到头上，叫做“结发”，表示成年。

옛날에 사람이 소년시기의 늘어뜨린 머리를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에 이르면 머리를 위로 묶어 올렸는데 이것을 結髮이라고 하고 성년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우리나라 해석들을 보면 劉承炫³⁶⁾은 “머리를 엮고 부부 된 것

34) 金學主, 앞의 책, p131

35) 李智海, 앞의 책, p3

36) 劉承炫, 앞의 논문, p29

은”, 金光照는 37) “머리를 엮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은”, 嚴貴德38) 은 “머리를 엮고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해석 하고 있다.

中國 古代에는 성년의식의 結髮 외에도 다른 의미의 結髮 있는데 이 부분은 劉蘭芝와 焦仲卿이 結婚한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의식의 結髮과는 거리가 있으며 結婚과 관련된 禮의 하나인 結髮로 살펴봐야 한다.

安東煥은 <孔雀東南飛에 반영된 漢代의 生活習俗>39)에서 ‘婚姻習俗’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혼인 절차를 ① 중매(納彩) ② 擇日과 定婚(納吉) ③ 禮物 보내기(納徵) ④ 請期和 신부 집의 혼수 준비 ⑤ 親迎 ⑥ 혼례 장소와 시간 등을 <孔雀東南飛> 문장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句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婚禮時 치러지는 의식 중의 하나인 結髮의 禮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다른 자료들을 보면 結髮이 결혼의 의례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王運熙, 王國安은 40) 結髮에 대하여

結髮, 指成婚。古禮, 成婚之夕, 男左女右共髻束髮

結髮은 결혼하는 것을 가리킨다. 옛날의 의례이다. 결혼하는 저녁에 남자의 왼쪽 머리와 여자의 오른쪽 머리를 함께 묶는 것이다.

라고 얘기 하고 있으며

漢 偽蘇武詩41)에서는

結髮爲夫婦, 恩愛兩不疑

결발하여 부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의심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清 陳夢雷 《青青河畔草》 42)詩에서는

37) 金光照, 앞의 논문, p40

38) 嚴貴德, 앞의 논문, p263

39) 安東煥, 앞의 논문

40) 王運熙, 王國安, 앞의 책, p208

41) 王運熙, 王國安, 앞의 책, p208 재인용

42)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世紀出版股份有限公司, 上海辭書出版社 編纂, 2008年 8月 第1版,

結髮與君知, 相要以終老

당신과 함께 결발하고 서로 늙어 죽을 때 까지 함께하기를 원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위의 자료들은 결혼을 의미하는 結髮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新婚別>이라는 唐 杜甫의 시에서도 “結髮爲妻子 席不煖君牀(결발 하여 부인 되었으나 그대의 잠자리를 데워주지 못하였네)”라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句의 ‘結髮’은 독특한 중국 고대의 결혼 풍습이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머리를 엮는 풍속하고는 구분이 되는 결혼의 禮이다. 그 외에 결혼과 관련된 머리 묶는 의식으로는 “纓”을 들 수 있다.

《礼记·曲礼上》⁴³⁾에는

女子许嫁, 纓。

여자가 결혼을 허락하면 纓⁴⁴⁾을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仪礼·士昏礼》⁴⁵⁾에서는

主人入, 亲脱妇之纓

신랑이 들어와 손수 아내의 纓을 풀어준다.

라고 되어 있다.

이 풍습은 여자가 결혼이 결정이 되면 머리를 묶는 것으로 結髮한 머리는 新婚初夜에 신랑이 손수 풀어 주는 풍습이다.

“結髮共枕席” 이 句는 劉蘭芝와 焦仲卿이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이며 “結髮共枕

第 9卷, p811

43) 罗竹风 主编, 《漢語大詞典》, 第九卷 下冊, p1054

44) 纓은 여자가 결혼하기로 허락하면 오색의 끈 같은 것으로 머리를 묶는 것을 말한다.

45) 罗竹风 主编, 《漢語大詞典》, 第9卷, p811

席”아랫부분에 “共事二三年(함께 산지 2,3년이니)”이라는 句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句에서 말하는 結髮은 결혼식 날에 행하는 하나의 禮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句의 結髮을 “결발하여” 또는 “결혼하여” 정도로 해석 하고자 한다.

2) 留待作遺施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해석 89번째 句로 이 부분은 蘭芝가 친정으로 쫓겨나기 전날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焦仲卿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필자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遺施’이다. 이 句는 판본에 따라 “遺施” 또는 “遣施”로 쓰여 있다. 이렇게 쓰인 것은 문자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한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여기서 본 논문의 저본으로 삼은 《历代叙事诗赏析》⁴⁶⁾의 텍스트인 “留待作遺施” 句중의 “遺施” 의미를 고찰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이 句에 대한 우리나라 해석은 대부분 “남에게 나눠 주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金光照⁴⁷⁾는 이 부분에 대하여

두었다가 남들이나 나눠주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金庠濼⁴⁸⁾

남겨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며 그 외에 李浚植⁴⁹⁾, 劉承炫⁵⁰⁾도 위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46)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 《历代叙事诗赏析》, 安徽文艺出版社, 2001年 1月

47) 金光照, 앞의 논문, p45

48) 金庠濼, 앞의 논문, p129

49) 李浚植, <先秦兩漢 敘事詩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있다. 위의 해석들은 劉蘭芝가 焦仲卿에게 미련이 남아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살펴보면 劉蘭芝와 焦仲卿은 헤어지면서도 서로에게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은 이 이별을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焦仲卿은 친정으로 떠나는 劉蘭芝를 배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俱會大道口(구회대도구) : 둘은 큰 길 입구에 이르러 함께 만나
 下馬入車中(하마입차중) : 말에서 내려 수레 속에 들어가
 低頭共耳語(저두공이어) : 머리를 낮추어 귓속말을 하네
 誓不相隔卿(서불상격경) : 맹세컨데,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 내용은 焦仲卿의 마음을 얘기 하는 것으로 劉蘭芝를 친정으로 잠시 떠나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劉蘭芝도 焦仲卿에게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한다.

新婦謂府吏(신부위부리) : 신부가 부리에게 말하기를
 感君區區懷(감군구구회) : 당신의 사랑스런 마음에 감동하오니
 君既若見錄(군기약견록) : 당신이 만약 절 버리지 않는다면
 不久望君來(불구망군래) : 머지않아 당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련을 남겨 두고 이별을 하고 있다. 그리고 “留待作遺施”句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時時爲安慰(때때로 위안을 삼으시며), 久久莫相忘(오래도록 저를 잊지 마세요.)” 라는 句가 있다. 이것을 보면 劉蘭芝와 焦仲卿이 이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이별을 영원한 이별인 것처럼 자신이 쓰던 물건을 “남에게 나눠 주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인 듯하다. 그리고 “留待作遺施”句 뒤에 있는 “時時爲安慰”句는 “때때로 위안을 삼으시며”라고 해석 되는데 위의 예와 같이 해석을 한다면 무엇으로 위안을 삼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안을 삼으려면 스스로 마음을 위안한다거나 위안물이 따로 있어서 그 위안물로 위안을 삼으라고 해야 한다. 필자는 이 부분을 劉蘭芝가 남겨준 물건들

50) 劉承炫, 앞의 논문, p31

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라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金學主⁵¹⁾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것들을 남겨 놓아 주려하니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劉蘭芝는 자신의 물건을 이별의 기념물로 남겨 놓을 테니 그것을 기념으로 삼아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李智海⁵²⁾는 이 부분에 대하여

你留着做纪念吧。从此再也无缘相会了。

这是赠别时的一种说法。这是赠别时的一种委婉的说法。

“남겨 둘 터이니 기념으로 삼으세요. 이로부터는 서로 다시 만날 인연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증별시의 일종의 표현이다. 이것은 증별시의 일종의 완곡한 표현법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李英健, 李克⁵³⁾은

留着作为我赠送给你的纪念品吧, 从此没有再见面的机会了。时时把这些东西作个安慰吧。

남겨 놓고 당신에게 드릴 터이니 기념품으로 삼으세요, 이로부터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

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들로 위안을 삼으세요.

라고 詩解하고 있다.

그 외에 邓魁英, 韓兆琦 等の 합편한 《汉魏南北朝诗选注》⁵⁴⁾, 王运熙, 王国安이 共著한 《汉魏六朝乐府诗评注》⁵⁵⁾ 에서도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주석을 달고 있다. 위의 예들은 모두 “遺施”를 焦仲卿에게 이별의 기념물로 선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51) 金學主, 앞의 책, p117

52) 李智海, 앞의 책, p7

53) 李英健, 李克 注编, 《郭茂倩, 乐府诗集》, 万卷出版公司, 沈阳市, 2009年3月, p221

54) 邓魁英, 韓兆琦 等, 앞의 책, p66

55) 王运熙, 王国安, 앞의 책, p209

여기서 “遺施”의 사전적 의미들을 살펴보면 “遺施” 중의 遺은 “遺(yí) : 遗留 (남기어 놓음)”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国语·鲁语上》 56)에서는

臣闻圣王公之先封者， 遗后之人法， 使无陷于恶

천자가 먼저 봉한 것은 후인들에게 본보기로 남겨 악에 빠짐이 없게 함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遺”字가 “남기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遺”字가 “遺(wèi) : 给予 ; 馈赠(주다, 선물하다, 선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도 있는데 《书·大诰》 57)에서는

宁王遗我大宝龟， 绍天明即命

宁王이 나에게 큰 보귀를 선사한 것은 천명을 계승하라는 命이다.

라는 句에서 “遺”字가 “선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宋 苏轼의 《论高丽买书利害札子》 58)에서도

高丽所得赐予， 若不分遗契丹， 则契丹安肯听其来贡

고려가 하사 받은 것을 거란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거란이 어찌 조공하러 오는 것을 허락하려 했겠습니까?

라고 “遺”字가 “선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遺施” 중의 “施”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다”라는 의미로 된 경우가 있는데

《广雅， 释诂三》 59)에서는

施， 予也.

施는 “주다” 이다.

56)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 第十卷, p1186

57)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 第十卷, p1186

58)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 第十卷, p1186

59)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 第六卷, p1576

라고 되어 있고

唐 拾得 《诗》 之十八⁶⁰⁾에서는

輟已惠於人, 方可名为施.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가히 베풀다고 이름 할 수 있다.

라는 句에서 “施” 字가 사용되고 있으며

《論語, 顏淵 第十二》 61)에서는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라고 “施” 字가 사용된 예가 있다. 그리고 罗竹风 主編한 《漢語大詞典》에서는 ‘遺施’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明焦竑의 《玉堂丛语 · 纒漏》⁶²⁾에는

庚戌, 虜闖入邊, 司業王同祖上書, 請損內帑數百萬金, 遺施北荒外之虜, 與中國夾攻之.

국경에 함부로 소수민족이 들어오니 사로잡았다. 司業왕동조가 상서를 해서 금고속의 수백 만금을 더욱 북방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선사해서 중국과 함께 그들을 협공하자고 청했다.

라는 문장이 있다. 이 경우가 바로 “遺施”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의 “遺施”는 “선물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의 사용 예로 <孔雀東南飛> “留待作遺施” 句를 들고 있다.

위의 예로든 “선물하다”는 의미의 “遺施”는 자신이 준 기념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남에게 주는 그런 의미의 해석이 아니다. 이 句의 아랫부분에 “久久莫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아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남겨준 물건들을 보면서 焦仲卿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남

60)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第六卷, p1576

61) 成百曉 《論語集註》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한국법령정보주식회사, 2009年, 3월 5일, p,332

62)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第十卷, p1201

들이나 나눠주오.”라고 해석하는 것은 뒤의 문장과의 연결에서 어색함을 느끼게 한다. 위에 제시한 자료들과 앞뒤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이 구절은 劉蘭芝가 焦仲卿에게 자신을 기억할 만한 물품을 남겨 주는 것으로 그 물건을 보면서 오래도록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부분으로 봐야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부분을 “당신에게 선물로 남겨줄 터이니”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3) 好自相扶將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122번째 句로 劉蘭芝가 친정으로 쫓겨 가는 날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난 후 시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 句가 두 가지로 해석 되는 이유는 ‘相’字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相”字는 비교적 복잡한 상용 부사 중의 하나이다. <孔雀東南飛> 중에는 십 여 곳에 “相”字가 등장하는데 부사 용법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대명사로 사용되는 예도 있다.

‘相’字는 相互의 사이를 나타내지 않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한 동작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史記·魯仲連鄒陽列傳》 63)에 보면

臣聞明月之珠，夜光之璧，以闇投人於道路，人无不按劍相眄者

신이 듣건데 明月之珠와 夜光之璧을 몰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사람들이 칼을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노려보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고

唐 杜甫 〈送高三十五書記〉 詩⁶⁴⁾ 에는

驚風吹鴻鵠，不得相追隨

강풍이 불어 큰 고니를 불러나 가게 하지만 나는 따라 갈 수가 없네.

63)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第七卷, p1135

64)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第七卷, p1135

라는 구절 있다. 呂叔湘은 일찍이 1940년대에 偏指용법을 가지고 있는 "相"字를 代詞性副詞로 생각했고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로 분별했다.⁶⁵⁾ 《孔雀東南飛》“勤心養公姥 好自相扶將”句의 ‘相’字도 대명사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相’字가 가리키는 인물을 焦仲卿 어머니로 보는 학자도 있고 시누이로 보는 학자도 있다.

肖輝⁶⁶⁾는 이 부분에 대하여

当是刘兰芝临别时劝勉小姑“养公姥”“扶将（公姥）”之言，而不是要小姑“扶将”自己，故“扶将”的受事者当是焦母，而“相”亦当兼代“她”

劉蘭芝가 이별에 임해서 시누이에게 “시어머님을 잘 봉양하고” “어머님을 잘 모시라”는 말이지 “시누이 자신의 몸을 잘 보살피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扶將의 수해자는 焦母라고 생각한다. 相 또한 당연히 “她”를 대신한다.”

라고 하고 있고

李智海⁶⁷⁾는 이 부분을

望你今后尽心奉养婆婆，好好的服侍老人家。

오늘부터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李英健, 李克이 注編한 郭茂倩 《乐府诗集》⁶⁸⁾, 刘允声등이 合編한 《古诗文译注》⁶⁹⁾의 譯文 에서도 위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勤心養公姥”와 “好自相扶將” 두句 모두를 시누이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으로 “相”字를 시어머니로 보고 있는 해석이다.

65) 肖輝, <孔雀东南飞“相”义解>, 铜陵职业技术学院学报, 2006年 02期, 재인용

66) 肖輝, 앞의 논문

67) 李智海, 앞의 책, p9

68) 李英健, 李克 注編, 앞의 책, p222

69) 刘允声, 彭格人, 앞의 책

劉蘭芝는 시어머니에게는 구박을 받았지만 시누이와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李杏林의 《孔雀东南飛 研究》 70)에 보면

“初七及下九”는 두 개의 민속 기념일로서 乞巧节과 娘娘会이다. 乞巧节은 아가씨들의 전문 집회 기념일이고 娘娘会是 가정주부를 위한 전문 기념일이다. 乞巧节은 7월 초 7일 밤 아가씨들이 바늘에 실을 꿰는 경기도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흥이 나게 노는 날이다.

下九는 每月 十九일에 부녀자들이 즐겁게 모이는 기념일이다. 小市 일대에서는 매년 음력 9월 19일에 한차례 모이 것을 말하며 속칭 娘娘会라고 한다. 이날은 경사스러운 듯이 회식을 하고 도량을 하고 절에 가서 王母娘娘(서왕모)을 참배하는데 이것을 湿会라고 한다. 부녀자들은 어린 딸 또는 손녀딸을 데리고 참가하는데 “오십을 맞으면 백이 온다.”는 상황이 형성된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할머니는 맞지 않는다. 50인을 맞으면 100명이 온다.”라는 농담이 만들어 질 정도였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어른들이 어린 딸이나 손녀딸을 데리고 乞巧节과 娘娘会에 참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劉蘭芝가 “初七及下九(칠월 칠석이나 매달 열 아흐레 날), 嬉戲莫相忘(즐겁게 놀았던 일 잊지 마세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보아 이 행사에 劉蘭芝와 시누이가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놀았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누이와의 이별에서 시누이의 앞날을 염려하는 인사말을 남겼을 것

70) 李杏林, 앞의책, p14 요약

“初七及下九, 嬉戲莫相忘”这是诗中所写的两个民俗节日, 即乞巧节与娘娘会。前者为姑娘们专门集会的节日, 后者为家庭主妇的专门节日。所谓“乞巧”就是古历七月初七日夜, 姑娘们集会, 进行对月穿针的比赛, 胜者为针姐, 败者为针妹。此夜姑娘们可尽情玩耍, 相互打趣, 唱歌跳舞, 各尽其兴。所谓“下九”, 古人又每月的二十九日为上九, 初九日为中九, 十九日为下九, 汉时每月十九日是妇女们欢聚的节日。在小市一带过去表现稍有不同, 不是每月十九都集会, 而是每年的古历九月集会一次, 俗称“娘娘会”。为了隆重地庆祝这一天, 过去一般以自然村或相邻的自然村为单位, 由妇女们自动组织起一个群众体。亦即“娘娘会”, 由大家出资建立起一个公积金组织, 放债取息, 作为娘娘会集会开支, 轮流做东, 像办喜事那样会餐, 作道场, 去庙里朝拜王母娘, 这叫“湿会”, 由中农以上人家妇女组成; 而贫下中农人家妇女无法筹集资金, 也组织起“干会”, 不会餐, 不做到道场, 仅由各人拿几个鸡蛋换点儿香纸, 朝拜娘娘。总之闹得热火朝天, 沸沸扬扬, 并且团体与团体之间相互比赛, 争奇斗艳。每个与会者都喜欢携带小女儿或孙女儿参加这样就形成了“接五十来一百”的局面, 于是在民间形成了“奶客接不得, 接五十来一百”的戏言。

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그런 시누이에게 잘 지내라는 인사말도 없이 만약 두
구를 초모에 대한 인사말로 해석한다면 아래 문장 “初七及下九(칠월 칠석이나 매
달 열 아흐렛날) 嬉戲莫相忘(즐겁게 놀았던 일 잊지 마세요) 句와의 연결이 갑
작스러운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의 해석본들은 주로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장의 相자를 시누이로 봐서 해석들
을 하고 있다.

嚴貴德⁷¹⁾은 이 句에 대하여

“스스로도 몸保重하시고”

라고 해석 하고 있으며

金學主⁷²⁾는

“자신의 몸도保重(保重)하세요.”

라고 하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의 몇몇 학자들도 “相”字를 시누이로 보고 해석하고 있다.

刘学锴 등이 합편한 《历代叙事诗赏析》⁷³⁾에서는

你自己也要多保重。

자신의 몸도保重하세요.

라고 하고 있으며

李智海⁷⁴⁾는

71) 嚴貴德, 앞의 논문, p275

72) 金學主, 앞의 책, p118

73)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 앞의 책, p43

74) 李智海, 앞의 책, p9

相：代“她”，指小姑

相은 그녀를 대신하며 시누이를 가리킨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李杏林⁷⁵⁾은 <孔雀東南飛>에 나타난 ‘相’字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第一人称代“我”，“自己”	第二人称代“你”，“你的”	第三人称代“他”
①嬉戏莫相忘 我，指兰芝	①会不相从许 你的	①及时相遣归 她，指兰芝
②久久莫相忘 我，指兰芝	②还必相迎取 你，指兰芝	②登即相许和 他 指太守家
③誓不相隔卿 我，指仲卿	③誓天不相负 你，指兰芝	③躡足相逢迎 他 指仲卿
④好自相扶将 自己，指小姑	④不得便相许 你 指媒人	④怅然遥相望 他 指仲卿

<孔雀東南飛> 본문 내용에서 “卻與小姑別 淚落連珠子(물러나와 작은 시누이와 이별하려니 눈물이 구슬처럼 흘러내리네)”를 보면 劉蘭芝는 시누이와 정이 많이 들었고 “初七及下九 嬉戲莫相忘(칠월 칠석이나 매달 열 아흐렛날 즐겁게 놀았던 일 잊지 마세요)”句를 봐서는 시어머니에게는 구박을 받았지만 시누이와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好自相扶將”句중의 ‘相’字는 시누이로 볼 수도 있으며 이句는 劉蘭芝가 떠나기 전에 시누이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자신의 몸도保重하세요.”라고 해석을 하고자 한다.

4) 舉手長勞勞

75) 李杏林, 앞의책, p37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150번째 句로 이 부분은 劉蘭芝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는 날 焦仲卿과 이별을 하는 장면으로 이 句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勞勞’이다. 지금까지는 “舉手長勞勞” 句중의 ‘勞勞’를 ‘슬퍼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鄧魁英, 韓兆琦 等の 《漢魏南北朝詩選注》 76)에서는

勞勞 : 忧伤。 这句是说, 二人挥手告别, 悲伤不已
勞勞는 비통해 하는 것이다. 이 句는 두 사람이 손을 흔들면 헤어지면서 한없이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劉學鐸, 趙其鈞, 周嘯天 등이 合編한 《歷代敘事詩賞析》 77)에서는

忧伤的样子。
슬퍼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王運熙, 王國安의 《漢魏六朝樂府詩評注》 78), 吳德新的 《樂府詩 歷史》 79)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 해석들을 보면 金學主⁸⁰⁾는

손을 잡고 오래도록 슬퍼하는데

라고 하고 있고

金庠濤⁸¹⁾는

76) 鄧魁英, 韓兆琦 等, 앞의 책, p68

77) 劉學鐸, 趙其鈞, 周嘯天, 앞의 책, p44

78) 王運熙, 王國安, 앞의 책, p209

79) 吳德新, 앞의 책, p53

80) 金學主, 앞의 책, p120

81) 金庠濤, 앞의 논문, p130

손을 들어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라고 하고 있으며

李浚植의 <先秦兩漢敘事詩研究>⁸²⁾ 에서는

손들어 오래도록 슬퍼하고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대완의 《한중역대한시선》⁸³⁾, 權赫錫의 《옥대신영 I》⁸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仲卿은 蘭芝를 배웅하면서

下馬入車中(하마입차중) : 말에서 내려 수레 속에 들어가

低頭共耳語(저두공이어) : 머리를 낮추어 귓속말을 하네

誓不相隔卿(서불상격경) : 맹세컨데, 나는 그대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니

라고 말을 하며 사랑을 맹세하고 있고 劉蘭芝도

感君區區懷(감군구구회) : 당신의 사랑스런 마음에 감동하오니

君既若見錄(군기약견록) : 당신이 만약 절 잊지 않는다면

不久望君來(불구망군래) : 머지않아 당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仲卿의 사랑의 맹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감정은 애뜻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이별을 하고 있다. 그리고 劉蘭芝는 사랑의 맹세를 듣기는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오라버니의 성품이 천등같이 사나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한다.

金光照는 ⁸⁵⁾ 이 부분에 대하여

82)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83) 기대완, 《한위육조시선 (한중역대한시선 1)》, 보고사, 2005년 10월, p142

84) 서릉(徐陵)역음/ 권혁석(權赫錫) 옮김, 앞의 책, p162

85) 金光照, 앞의 논문, p44

손을 들어 오랫동안 흔드니

라고 해석 하고 있으며

劉承炫은⁸⁶⁾

손을 들어 오래오래 흔드니

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두 종류의 해석들은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해도 앞 뒤 문장의 연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과 참고 자료들을 살펴 볼 필요성은 있다.

方有国の <孔雀东南飞 “劳劳” 义辨>⁸⁷⁾ 에서는

古代汉语中, “劳”可以通“辽”。《广韵·萧韵》:“辽, 《说文》:‘远也。或做‘劳’。《诗经·小雅·渐渐之石》:渐渐之石 维其高矣. 山川悠远, 维其劳矣。(중략)

以古之字少, 多相假借。其他古书也有“劳”通“辽”的用例, 如刘勰《文心雕龙 辨骚》:“山川无极, 情理实劳。”陆侃如, 牟世金《文心雕龙译注》(齐鲁书社 1981年版):“劳, 借为‘辽’字, 有广阔辽远的意思。”

“劳”通“辽”而又辽远义, 重言“劳劳”则可描写辽远貌或远离貌, 《孔雀东南非》中的“劳劳”即这种用法。

秦汉典籍中, 重言“劳劳”最早用例即《孔雀东南非》“举手长劳劳”。这句诗出现的语境是送别, 后来“劳劳”成为古人的送别语,

古代漢語에서 “勞”는 “辽”와 통할 수 있다.

《广韵·萧韵》:“辽, 《说文》:‘远이다.’ 또는 “勞”로 여긴다. 《诗经·小雅·渐渐之石》:우뚝 솟은 바위는 높기도 하네. 산천이 아득하니 멀기도 하네.(중략)

옛날에는 글자가 적어서 글자를 빌어서 썼다. 기타 고 서적에도 “勞”가 “辽”로 통하는 용례가 있다. 예를 들면 유협《文心雕龙 辨骚》:“산천은 끝이 없고 도리는 실로 멀다.”

陆侃如, 牟世金《文心雕龙译注》(齐鲁书社 1981年版):“勞는辽를 빌린 자이다.”

86) 劉承炫, 앞의 논문, p33

87) 方有国, <孔雀东南飞 “劳劳”义辨>, 语文建设, 2007年Z1期, 요약

광활하고 요원하다는 뜻이 있다. 勞는 辽자와 통하고 요원하다는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勞勞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孔雀東南飛 중의 勞勞는 바로 이런 용법이다.

秦汉典籍중 勞勞가 가장 처음 쓰인 예는 <孔雀東南飛> “舉手長勞勞”이다. 이 詩句에 나타난 語境은 送別이다. 그 뒤에 “勞勞”는 古人의 送別語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李智海의 《孔雀東南飛故園拾穗》88)에서는

勞勞 : 中学语文本解为 : 忧愁伤感的样子, 非也。劳, 读“lào”, “动”的意思, 是《孔雀东南飛》故事发生地安徽省怀宁县小吏港一带所特有的语词, 至今仍鲜活在民间。如你这孩子睡觉时两只脚喜欢劳(lào), 打针时你的手别劳(lào)。《国语·越语》: 劳而不矜其功。注 : “动而不已也。”可作为佐证。

勞勞는 걱정스럽고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다. 勞는 “lào”로 읽는다. “动”의 뜻이다. 《孔雀東南飛》이야기 발생지 安徽省怀宁县小吏港 일대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생하게 민간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잠잘 때 두 다리를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lào), 주사 맞을 때 손 움직이지 말아라. 《国语·越语》: 劳而不矜其功。注 : “움직임을 그만 두지 않는다.”로 증거를 삼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勞”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위의 제시한 예들과 孔雀東南飛 내용의 흐름에 맞추어 본다면 이 句는 서로 사랑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이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어렴풋이 보일 때 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舉手長勞勞” 句중의 “勞勞”를 “슬퍼하는 모습” 이 아닌 “오래오래 흔들는 모습”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5) 尋遣丞請還 說有蘭家女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191, 192번째 句로 이 부분은 蘭芝가 친정으로 돌아와 첫 번째 청혼을 거절하고 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88) 李智海, 앞의 책, p11

태수의 집에서 두 번째 청혼을 해오는 단락이다.

이 부분은 여러 학자들이 글자의 脫漏 또는 錯誤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상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은 “遣丞”과 “蘭家女” 부분으로 ‘遣丞’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蘭家女’는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석본들은 遣丞의 주체가 누구인지, 蘭家女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고 이로 인해 詩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는 “遣丞”의 주체를 현령으로 보고 “蘭家女”를 劉蘭芝가 아니 제3의 아가씨로 보는 것이며 둘째로는 “遣丞”의 주체를 “太守”로 보고 “蘭家女”를 劉蘭芝로 보는 것이다.

權赫錫⁸⁹⁾은 이 부분을

얼마 후 현승을 보내어 알아보고 돌아오게 했는데
현승이 현령에게 말하기를 난씨 집안의 딸이 있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는 遣丞의 주체를 현령으로 보고 있고⁹⁰⁾ 현령이 현승에게 太守를 찾아가 결혼에 관한 것을 물어 오게 하고 있으며 현령의 아들의 배필을 蘭氏집안의 딸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金光照는⁹¹⁾

곧 현승을 보내어 여쭙고 돌아왔소
蘭氏 집에 아가씨가 있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의 해석은 權赫錫의 해석과 거의 같으나 “遣丞”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蘭家女”도 “蘭氏 집에 아가씨”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李英健, 李克이 注編한 郭茂倩 《乐府诗集》에서는 ⁹²⁾

89) 서릉(徐陵)염음/ 권혁석(權赫錫) 옮김, 앞의 책, p87

90) 서릉(徐陵)염음/ 권혁석(權赫錫) 옮김, 앞의 책, p167

權赫錫은 아래와 註釋을 달고 있다 “尋遣丞請還”에서 “丞”은 縣丞을 가르킨다. 縣令의 속관. “請”: 알아보다. “還”은 현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遣”의 주체는 縣令이며, 請還의 주체는 縣丞이다.

91) 金光照, 앞의 논문, p45

92) 李英健, 李克 注編, 《郭茂倩, 乐府诗集》, 앞의 책, p225

县令의 媒人 走了几天, 不久被派到太守那里请示事情的县丞回来了。太守示意县丞劝县令另外向兰家女求婚, 让刘兰芝嫁给他的第五个儿子

현령이 중매인이 가고 며칠 뒤, 오래지 않아 태수에게 파견해서 간 현승이 업무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태수는 현승에게 현령이 가서 난가녀에게 청혼하게 하라는 뜻을 표시했고 蘭芝는 그의 다섯째 아들에게 시집오게 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해석들은 첫 번째로 청혼 해 왔던 현승 아들의 결혼 문제와 두 번째로 청혼 해온 태수 아들의 결혼 문제를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앞 단락인 “還家十餘日 縣令遣媒來 云有第三郎~~幸可廣問訊 不得便相許” 부분과 내용을 연결시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령의 아들이 蘭芝에게 청혼하고 거절을 당했으면 일단 앞 단락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孔雀東南飛>는 焦仲卿과 蘭芝가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詩 중간에 현령 아들의 혼사 문제를 반복해서 등장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현령 아들의 혼사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시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의 난해함을 가져다준다.

金學主⁹³⁾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고을 태수(太守)가 관원을 파견하여
아들 혼처를 찾아보게 하였는데 돌아와 보고 하였네
좋은 집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遣丞’의 주체를 太守로 보고 있지만 ‘蘭家女’를 ‘좋은 집안의 딸’로 표현함으로써 ‘蘭家女’가 劉蘭芝 인지 아니면 제 3의 인물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기태완은 《한중역대한시선》⁹⁴⁾에서

93) 金學主, 앞의 책, p121

94) 기태완, 《한위육조시선 (한중역대한시선 1)》, 보고사, 2005년 10월

곧 파견된 관리가 청혼하러 왔네
난지라는 여자가 있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는 “遣丞”의 주체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蘭家女를 劉蘭芝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李智海⁹⁵⁾는 이 句에 대한 해석을

“县令派来的媒人走后才几天，太守接着就派郡丞来请婚了。”

“현령이 보내온 중매인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나서 태수가 이어서 군승을 보내어 청혼을 해왔다.”

“郡丞说：太守早就听说有一个兰芝姑娘，她出生于宦官人家”

군승이 말하기를 : 태수는 일찍이 환관이 집에서 태어난 蘭芝라는 아가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遣丞”의 주체를 태수로 보고 있으며 蘭家女를 劉蘭芝로 보고 있다. 필자도 李智海와 생각을 같이 한다.

劉蘭芝가 이 句에서는 “蘭家女”로 표현되고 있어서 劉氏인 劉蘭芝가 어떻게 “蘭家女”로 표현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다. 罗竹风 主编한 《漢語大詞典》⁹⁶⁾에서는

家: 家 [guī 《正字通》音姑] 通“姑” ①古時对女子的尊称 《後汉书，列女传》：

“扶风曹世叔妻者，同郡班彪之女也，名昭，字惠班，一名姬。博学高才。世叔早卒，有節行法度。兄固著《漢書》，其八表及《天文志》未及竟而卒，和帝詔昭就東觀臧書閣踵而成之。帝數召入宮，令皇后諸貴人師事焉，號曰大家。《正字通·宀部》：“家讀姑。”

家: 家是 [gū 《正字通》 음은 姑이다] “姑”와 통한다. ①옛날, 여자의 尊称이다 《後汉书，列女传》：扶风지방 曹世叔의 처는 같은 군의 班彪이 딸이고 이름은 昭, 字는 惠班, 일명 姬. 박학하며 재주가 뛰어나고 世叔이 일찍 죽자 절개가 있어 법도를 행했다. 그의 오빠 班固는 《漢書》를 썼는데 그중 八卷表記와 《天文志》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95) 李智海, 앞의 책, p13

96) 罗竹风 主编, 《漢語大詞典》, 第三卷 下冊, p1459

漢 和帝는 班昭에게 조서를 내려 東觀漢記에서 반고의 유지를 이어서 《漢書》를 완성하게 하였다. 和帝는 여러 차례 班昭에게 入宮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皇后와 貴人들에게 스승의 예로써 班昭를 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班昭는 이 때문에 “大家”라 불리워졌다. 《正字通·宀部》：“家를 姑로 읽는다.”

라는 내용이 있고. 郭序文의 <试解 孔雀东南飞中的疑节>에서 “《正字通》의 “家”는 姑와 같고 “家女”는 바로 “姑女” 즉 “姑娘”이다. 그러므로 蘭家女는 바로 “蘭姑娘”이다.”⁹⁷⁾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蘭芝”를 “蘭”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 시는 전체가 1句 5言으로 되어 있어서 5言의 규칙을 맞추기 위하여 “蘭芝”의 芝자를 생략해서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청혼 시 상대방의 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대의 여자의 존칭인 “家”를 붙여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尋遣丞請還 說有蘭家女”句에서 遣의 주체는 태수이고 蘭家女는 劉蘭芝를 나타내고 있으며 說有蘭家女로부터 故遣來貴門까지는 태수가 보낸 軍승이 劉蘭芝 母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한 단락을 전체를 태수 집안에서 蘭芝 집안으로 청혼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령의 아들 혼사 문제가 이 단락에 끼어들지 않게 되므로 문장이 정돈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중심인물인 蘭芝 중심의 문장 흐름이라 볼 수 있어서 앞부분의 해석보다 한층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부분의 해석을 “태수가 軍승을 보내어 청혼하고 돌아오게 하니, 난지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자 한다.

6) 諾諾復爾爾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226번째 句로 이 부분은 현령의 아들과의 혼담은 劉蘭芝가 거절을 하였지만 태수 아들과의 결혼 문제는 오라버니의 꾀박을 받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고 劉蘭芝는 “雖與府吏要(부리와 더

97) 郭序文, 试解 <孔雀东南飞中的疑节>, 伊犁教育学院学报, 学术期刊, 伊犁教育学院学报, 2004年 第17卷 第4期

붙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渠會永無緣(그 사람과의 인연은 없는 것 같네요)”라고 말을 하며 오라버니의 뜻을 따라 결혼을 결심한다.

“媒人下床去 諾諾復爾爾”句는 결혼에 응하겠다는 劉蘭芝 말을 듣고 중매인인 군승이 기쁜 듯이 대답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句에서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爾爾”字이다. 金光照는 <孔雀東南飛研究 - 作品 解釋에 대한 몇가지 小考 ->98)에서 이 부분의 해석을 “빙글빙글 또 다시 희희낙락”으로, 기대완은 《한위육조시선 (한중역대한시선 1)》99)에서 “즐겁게 길을 달려”라고 하고 있으며 劉承炫은 <漢代樂府民謠와 三曹 樂府詩 비교 연구>100)에서 “빙글빙글 연방으로 꼬덕꼬덕”이라고 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해석으로는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는 해석이다.

李浚植 은 <先秦兩漢敘事詩研究> 101)에서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 외에 金學主¹⁰²⁾ 金庠濫¹⁰³⁾, 金貞順¹⁰⁴⁾등은 李浚植과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외에 刘学锴등이 共著한 《历代叙事诗赏析》105)에서는

诺诺句：大意是“好，好，就这样”。诺诺：答应声。尔：如此

诺诺句의 큰 의미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이다. 诺诺은 대답하는 소리이며 尔는 “이렇게 합시다.”이다.

라고 注를 달아 놓고 있으며

98) 金光照, 앞의 논문, p46

99) 기대완, 앞의 책, p145

100) 劉承炫, 앞의 논문, p35

101)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p111

102) 金學主, 앞의 책, p,123

103) 金庠濫, 앞의 논문, p132

104) 金貞順, 앞의 논문. p.19

105)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 앞의 책 p45

李智海는 《孔雀东南飞故园拾穗》 106)에서

诺：答应之辞，有“是”的意思。 诺诺， 连声答应。 尔尔：如此如此。 是说郡丞十分高兴， 连声说“是，是，是”，又说“如此，如此”。

诺은 대답하는 말 “예”의 뜻이다. 诺诺은 대답하는 소리, 尔尔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군승이 매우 기뻐서 하는 말이다. 연이어서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해석은 결혼을 결정짓는 대답이다. 군승은 중매인일 뿐이지 결혼을 단정 지어 “이렇게 합시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중간 者이다. “諾諾復爾爾”句 아래에 보면 “卿可去成婚(그대는 가서 혼인을 성사시켜주세요)”라는 句가 나온다. 이것으로 보면 군승은 단지 중매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혼에 대한 중요 결정은 태수와 蘭芝 집안의 몫이다.

王运熙, 王国安은 《汉魏六朝乐府诗评注》 107)에서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하여

诺诺, 尔尔, 形容连声答应称是

诺诺, 尔尔은 계속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王昱新은 <孔雀东南非 注释商榷> 108)에서 “예예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놓고 있다.

[诺诺复尔尔] 连声说‘是，是，就这样办’。尔尔。如此如此。”此说误。

黄节 《汉魏乐府风笺》中把“诺诺复尔尔”的“尔尔”解作“应辞也”

闻一多 《乐府诗笺》解作“应声也”；余冠英 《乐府诗选》也训为“应声”。(중략)

106) 李智海, 앞의 책, p16

107) 王运熙, 王国安, 《汉魏六朝乐府诗评注》, 齐鲁书社, 2000, 10, p210

108) 王昱新, 앞의 논문 요약

《汉语大字典》在释“爾”(古与“尔”同, 今为“尔”之繁体字)的第5个义项中指出:“叹词, 表示应答, 相当于‘唯, 。”就曾以《古诗为焦仲卿妻作》的“诺诺复尔尔”为例。

《华严经音义》引隋代诸葛颀《桂苑珠丛》:“爾谓言相然也。”“言相然”就是应声的意思。由此可见, ‘雨雨’训为‘应声夕, 是有根据的。”

黄节《汉魏乐府风笺》中“诺诺复尔尔”의 “尔尔”을 “대답는 말”로 해석하고 있고 闻一多是《乐府诗选》에서 “대답하는 소리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余冠英의 《乐府诗选》에도 “대답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으며(중략), 《汉语大字典》은 爾를 해석하는 제 5번째 항목 중에 지적하고 있다. “감탄사, 대답 하는 것을 나타낸다.” 唯(예)와 같다. 바로 《古诗为焦仲卿妻作》의 “诺诺复尔尔”를 예로 하고 있으며 《华严经音义》에서는 隋代 诸葛颀의 《桂苑珠丛》을 인용하여 “爾는 言相然을 말한다.” “言相然”은 바로 대답하는 소리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은 允승이 태수의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允승이 劉蘭芝의 결혼 승낙에 대하여 기쁜 듯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부분을 “예예, 예예”라고 반복하여 대답하는 소리로 해석을 하고 자 한다.

7) 交廣市鮭珍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249번째 句로 이 부분은 劉蘭芝와 태수 아들의 결혼식 준비를 하는 과정을 나타낸 부분으로 “流蘇金縷鞍(금색 수실로 장식된 말안장) 齋錢三百萬(삼백만을 지참금으로 하였는데) 雜綵三百匹(온갖 비단 삼백 필)” 등과 아래 부분의 “明日來迎汝(내일 너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데)” 로 보면 성대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句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交廣’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句를 “교주 광주의 산해진미를 갖추고”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金學主¹⁰⁹⁾는 이 부분의 해석을

109) 金學主, 앞의 책, p124

“교주(交州) 광주(廣州)의 진귀한 물건 갖추었네.”

라고 하고 있고, 金光照¹¹⁰⁾, 安東煥¹¹¹⁾, 劉承炫¹¹²⁾, 權赫錫¹¹³⁾, 李浚植¹¹⁴⁾ 등도 金學主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의 해석은 “交廣”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학자들은 “交廣”를 “교주”와 “광주”라는 지명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

鄧魁英, 韓兆琦 등이 합편한 《漢魏南北朝詩選注》¹¹⁵⁾에서는 건안 시기에는 광주라는 지명이 없었으며 “交廣”은 이후 사람들에 의해 첨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시가 쓰여 질 당시에 없는 지명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句의 글자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余冠英¹¹⁶⁾은

这句诗似可读成上一下四句, “交”同教, “广市鲑珍”就是广泛购买鲑珍。

이 句는 위의 1구, 아래 4구로 읽을 수 있다. “交”는 教와 같고 “广市鲑珍” 이것은 폭넓게 여기저기에서 해산물을 샀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交”는 教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教는 使, 令, 让의 뜻으로 “交廣市鲑珍”에서 交자 뒤에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생략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된 예를 들어 보면

《南史张融传》¹¹⁷⁾

“交爾藍縷, 亦虧朝望.”

너로 하여금 남루하게 하고 또한 조정에서의 명망을 일그러지게 하였다.

110) 金光照, 앞의 논문, p47

111) 安東煥, 앞의 논문, p274

112) 劉承炫, 앞의 논문, p36

113) 서릉(徐陵)엮음/ 權赫錫(權赫錫) 엮김, 앞의 책, p172

114)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115) 鄧魁英, 韓兆琦 등, 앞의 책, p70, 建安时还没有广州之称, 所以此句可能是后人修改加添的

116) 鄧魁英, 韓兆琦 등, 앞의 책, p70 재인용

117)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第二卷 上冊, p327

唐牛山乔 《杨柳枝》诗之四¹¹⁸)에서

莫交移入靈和殿, 宮女三千又妬伊.

靈和殿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궁녀 삼천이 또 질투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고

《金瓶梅词话》第一回¹¹⁹)에는

“你看那不曉事的, 叔叔在此, 無人陪侍, 却交撇了下去。

그 사리에 밝지 않는 것을 봐라. 숙부는 이 곳 있는데 모시는 사람이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 “交”字가 사용되고 있다. 위의 예들은 보면 “交”는 教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근거들에 의거하여 해석을 한다면 “交廣市鮭珍” “交”字는 어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게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집을 출발해서 여러 곳의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뒤의 문장을 보면 “從人四五百”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을 보러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四五百人이 함께 출발하는 것은 사람이 숫자로 치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앞부분의 “絡繹如浮雲(구름같이 사람들이 오가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 “從人四五百”句는 준비하는 사람이 많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서 숫자가 나오는 句를 살펴보면 “共事二三年(함께 산지 2,3년이니)”句에서 “二三年”은 결혼해서 산 기간이 짧음 나타내는 것이다. 뒷부분의 “年始十八九(나이는 십팔구세이고)”句는 현령 아들의 나이에 대하여 중매인이 설명하는 장면인데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십팔구세”라고 결혼 적령기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漢樂府 婦病行 詩 중의 “屬累君兩三孤子”이라는 구절 있는

118)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第二卷 上冊, p327

119) 罗竹风 主編, 《漢語大詞典》, 第二卷 上冊, p327

데 이 句는 죽음에 임박한 부인이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는 구절로 자기 자식을 “兩三孤子”라고 하고 있다.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兩三孤子”라고 표현하고 있다. 漢樂府 相逢行에서도 “兄弟兩三人”이라는 句가 있다. 여기서도 형제의 숫자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두서너 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 민가에서는 숫자를 명확히 표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從人四五百” 句는 뒤따르는 사람이 많음을 나타내는 과장법으로 볼 수 있으며 필자는 이 부분을 “交廣市鮭珍(널리 시장에서 산해진미를 갖추게 하니) 從人四五百(따르는 사람이 사오백 인)”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8) 因求假暫歸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269번째 句로 이 부분은 劉蘭芝와 태수 아들의 결혼이 결정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焦仲卿이 휴가를 얻어 蘭芝에게 달려오는 부분이다. 차마 결혼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인의 결혼 소식에 焦仲卿은 모든 일에서 우선으로 여겼던 府吏의 일도 잠시 멈추고 달려오고 있다.

공작 동남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건이 전개 될 때마다 焦仲卿은 사건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의 태도가 다르다. 그는 모든 일을 재껴 놓고 달려오고 있다.

“因求假暫歸” 句에서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暫”字이다. “暫”字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석본들은 대부분 “暫”字를 “잠시”라고 해석하고 있다.

金庠濫¹²⁰⁾는 이 부분의 해석을

쉴 틈을 얻어 잠시 돌아 왔다.

120) 金庠濫, 앞의 논문, p133

라고 하고 있으며

李浚植은 <先秦兩漢敘事詩研究>¹²¹⁾에서

휴가를 얻어 잠시 돌아온다.

라고 하고 있다.

그 외에 金光照¹²²⁾, 기태완¹²³⁾, 嚴貴德¹²⁴⁾, 金貞順¹²⁵⁾, 金學主¹²⁶⁾, 權赫錫¹²⁷⁾등도 이 부분을 모두 “잠시”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暫”字는 보통 “잠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잠시”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으리라고 보여 진다.

이 작품 중간의 “卿但暫還家, 吾今且報府”와 “誓不相隔卿, 且暫還家去”句에서도 “暫”字가 나오는데 이 두 句는 모두 “잠시”로 해석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

“卿但暫還家, 吾今且報府”라는 句 부분을 살펴보면 劉蘭芝가 시어머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하여 친정으로 가겠다는 말을 한다. 이에 焦仲卿은 어머니에게 蘭芝를 두둔하며 쫓겨내지 말 것을 간청을 한다. 그러나 焦仲卿은 나무라는 말만 듣고 물러나온다. 이 상황에서 焦仲卿은 劉蘭芝에게 “卿但暫還家(당신은 잠시만 집에 돌아가 있으시오) 吾今且報府(나는 관청에 보고해야 될 것이 있소)”라고 말을 하고 있다. 焦仲卿은 부인이 쫓겨나게 된 상황인데도 사건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蘭芝가 시집에서 쫓겨나 마지막으로 焦仲卿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暫”字가 나온다. 여기서도 焦仲卿은 관청일이 우선이다. 焦仲卿은 “且暫還家去(잠시 친정에 가 있으시오) 吾今且赴府(나는 지금 관청에 가야만 되지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焦仲卿은 여기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잠시 헤어지는 것으

121)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p113

122) 金光照, 앞의 논문, p48

123) 기태완, 앞의 책, p147

124) 嚴貴德, 앞의 논문, p268

125) 金貞順, 앞의 논문, p21

126) 金學主, 앞의 책, p125

127) 서릉(徐陵)엮음/ 權赫錫(權赫錫) 옮김, 앞의 책, p172

로 믿고 자신은 직무를 보러 또 관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위의 두 句는 焦仲卿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暫”字를 “잠시”로 해석해도 별 무리 없다. 그러나 “因求假暫歸” 부분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劉蘭芝의 결혼 소식을 듣고 관청 일을 우선으로 했던 焦仲卿이 드디어 휴가까지 내면서 蘭芝에게 달려가는 것이다.

李智海의 《孔雀东南飞故园拾穗》¹²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仲卿听到这个意外变故，于是就疾速请假回家。

仲卿이 이 이외의 변고를 듣고 휴가를 얻어 쏘살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暫”字를 “잠시”의 의미가 아닌 “쏘살같이, 빠르게”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王昱新은 《孔雀東南飛》注释商榷¹²⁹⁾에서 “因求假暫歸”句 中の “暫”字에 대하여

全诗用了三个“暫”字：一是“卿但暫还家，吾今且报府”的“暫”；二是“誓不相隔卿，且暫还家去”的“暫”；三是“府吏闻此变，因求假暫归”的“暫”。前两个“暫”是“暫且”、“暂时”之意，是常见义，可以不注；后一个“暫”是“疾速”的意思，现代汉语里已经不用了，不加注释，读者还会误以为是“暫且”、“暂时”之意。

시 전체에 “暫”字를 3군데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卿但暫還家”，“吾今且報府”의 “暫”， 두 번째는 “誓不相隔卿，且暫還家去”의 “暫”이고 세 번째는 “府吏聞此變，因求假暫歸”의 “暫”이다.

앞의 2 개의 “暫”은 “잠시”의 뜻이다. 이것은 자주 사용되는 의미라 注를 달지 않아도 된다. 뒤에 “暫”은 “쏘살 같다.(빠르다)”의 의미 이다. 현대 汉语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서 주석을 달지 않으면 독자는 “잠시”의 뜻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暫”字를 “재빠르다. 쏘살같다”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郭在贻은 《训诂丛稿·古代汉语词义札记(一)》¹³⁰⁾에서

128) 李智海, 앞의 책, p18

129) 王昱新, 앞의 논문

130) 王昱新, 앞의 논문, 재인용

暫字訓为疾速，正足以见出府吏心情之焦灼与行动之匆遽；若訓为暂时、暫且，则这句诗便平板呆滯、毫无意趣了。

“暫”字是“재빠르다”로 해석 한다. 부리의 심정이 몹시 초조하고 행동이 분주함을 나타내 보이기에 충분하다； 만약에 잠시로 해석하면 이 句는 바로 평범해지고 아무런 意趣없어진 다.

라고 하고 있다.

《汉书·李广传》¹³¹⁾에서는

暫騰而上胡儿马
재빠르게 오랑캐의 말에 올라탔다

라는 구절에서 “暫”字가 “재빠르게”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瘦信 《咏画屏风》第二十三首¹³²⁾에서는

竹动蝉争散，莲摇鱼暫飞。
대나무가 움직이자 매미가 다투어 흩어지고 연꽃이 흔들거리니 물고기가 재빠르게 떠다닌 다.

라는 문장을 볼 수 있으며

何子朗 《学谢体》¹³³⁾에서는

思君暫促柱，玉指何纤纤。(暫促柱犹乍拂弦)
그대 그리워 빠르게 악기를 타는데 옥 같은 손가락 어찌도 이리 가늘고 긴지.

131) 王昱新, 앞의 논문, 재인용

132) 王昱新, 앞의 논문, 재인용

133) 王昱新, 앞의 논문, 재인용

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古籍中에서 “暫”字가 “빠르다”로 해석하는 실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句는 劉蘭芝의 결혼 소식을 듣고 휴가까지 얻으면서 달려가는 焦仲卿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暫”字를 “잠시”로 해석해 버리면 사건의 전개 of 긴박성을 나타낼 수가 없고 생동감이 사라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위에 제시한 근거들과 초중경의 경황없이 달려오는 상황으로 봐서 이 부분의 “暫”字를 “재빠르다, 황급히” 등의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9) 君爾妾亦然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299번째 句로 이 부분은 焦仲卿이 劉蘭芝의 결혼 소식을 듣고 蘭芝를 찾아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焦仲卿은 蘭芝에게 “賀卿得高遷(당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축하하오) 磐石方且厚(반석은 만듯하고 두꺼워) 可以卒千年(가이 천년동안 가지만) 蒲葦一時紉(창포와 갈대는 한때는 부드럽고 질기지만) 便作旦夕間(바로 한 동안 일 뿐이오)”이라고 蘭芝에게 비꼬는 말을 하고 있다.

이 句에 대하여 劉承炫은 “당신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¹³⁴⁾, 李浚植은 “당신이 나 저나 다 그렇잖아요.”¹³⁵⁾, 金庠濫는 “당신이 그렇고 저 또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¹³⁶⁾, 기태완은 “당신과 내가 그러하옵니다.”¹³⁷⁾, 金光照는 “당신이 그렇고 저 또한 그런 것을”¹³⁸⁾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을 이와 같이 해석해서 넘겨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 句는 바로 이 詩의 비극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 즉 이 詩의 클라이맥스 부분이고 생각한다.

金貞順¹³⁹⁾은 이 부분을

134) 劉承炫, 앞의 논문, p37

135)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136) 金庠濫, 앞의 논문, P134

137) 기태완, 앞의 책, p148

138) 金光照, 앞의 논문, p49

139) 金貞順, 앞의 논문, p22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겠소.”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필자도 金貞順과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는 焦仲卿이 먼저 했지만 죽음을 결단력 있게 결정한 것은 劉蘭芝인 것이다. 焦仲卿이 “吾獨向黃泉(나 혼자 황천으로 갈 것이오)”라고 먼저 말은 했지만 진정으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劉蘭芝의 결혼을 방해 하는 것이 焦仲卿의 최고의 목표였을 것이다.

金貞順은 <孔雀東南飛의 人物 形象 研究>에서

焦仲卿은 이 작품에서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劉蘭芝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날 때 焦仲卿이 劉蘭芝에게 말한다. “내가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강요하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님께 모든 잘못을 전가 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¹⁴⁰⁾

焦仲卿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유아적인 발상으로 결국은 아내의 재혼을 방해하고 함께 자결을 유도한다. 이런 점은 焦仲卿의 우유부단하고 이기주의적인 형상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⁴¹⁾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金庠濫¹⁴²⁾는

일찍이 葉慶炳은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인물로 仲卿을 특징지었다.¹⁴³⁾ 이런 仲卿의 성격은 곳곳에 숨어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집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다가 蘭芝의 불평에 焦母를 대면하여 蘭芝를 옹호하는 행동하며, 「나는 그대를 쫓아내고 싶지 않지만/어머님께서 퍽박하시는 구려」라는 궁핍한 설명에 덧붙여, 자신의 부인이 추방당하는 와중에도 관청의 일을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 가정이 붕괴되는 위기에 부인의 앞날을 걱정 하기는 커녕 公事에 매달리는 우유부단함은 이별을 앞두고 계속 되풀이 되면서 혼

140) 金貞順, 앞의 논문, p37

141) 金貞順, 앞의 논문, p46

142) 金庠濫, 앞의 논문, p141

143) 葉慶炳, “孔雀東南飛의 悲劇成因與詩歌原型探討,” 《文學評論》 第2輯 : 「要命的焦仲卿性格」, 金庠濫, 앞의 논문, p141 재인용

란스러운 仲卿의 성격의 핵심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예를 보면 焦仲卿은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우유부단하고 혼란스런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인물로 까지 묘사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焦仲卿은 劉蘭芝가 쫓겨 가는 상황에서도 “卿但暫還家(당신은 잠시만 집에 돌아가 있으시오) 吾今且報府(나는 지금 관청에 보고해야 될 것이 있소)”라고 말을 하면서 관청으로 향한다. 아내가 쫓겨 가는 상황인데도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다. 한마디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焦仲卿은 劉蘭芝의 결혼이 결정되자 어떻게든 그 상황을 타개해야 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유아적 발상으로 아내의 재혼을 방해하려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에 반하여 蘭芝의 성격은 聰明하고 아름답고 貞淑하고 教養있고 勤勉하고 思慮깊고 獻身的인 外柔內剛한 人物로 形象化되었으며¹⁴⁴⁾ 중요한 순간마다 최종결정은 劉蘭芝가 직접 내리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蘭芝는 시집살이가 힘들어 친정으로 돌아 갈 때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便可白公姥(바로 시어머님께 말씀 드려서) 及時相遣歸(서둘러 친정에 가게 해 주세요)”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劉蘭芝는 친정으로 돌아온 후에 태수 아들과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도 “登即相許和(올라가서 서로 허락하셔서) 便可作婚姻(곧 바로 혼인을 하자고 해 주십시오)”라고 최종결정을 한다. 오라버니의 강요도 있었지만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시의 주요 사건의 마무리는 劉蘭芝가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劉蘭芝의 성격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庠濫¹⁴⁵⁾는 劉蘭芝의 형상에 대하여

“蘭芝의 우월한 형상은 실제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축출을 당하게 되자 반항은 자제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힌 점, 本家로 축출을 당하면서도 焦母와 올케에게 정중하게 작별인사를 올리는 점, 첫 번째 재혼 중매가 왔을 때 仲卿과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과감히

144) 嚴貴德, 앞의 논문, p272

145) 金庠濫, 앞의 논문, p140

거부한 점, 자결로 봉건 가족제도의 모순에 항변하는 점, 자결 할 때도 신발을 벗고 연못에 투신 할 정도로 침착함과 과단성을 겸비한 점 등 「억압을 받으면서도 결단력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성」의 미덕으로 표현되는 蘭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

자결의 방법이 본래 仲卿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蘭芝의 과단성이 없었다면 그것이 의도대로 실행에 옮겨졌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蘭芝는 「절대로 오늘 말씀을 어기지 마세요.」라고 一言之下로 선언하는 것에 반하여, 仲卿은 焦母에게 찾아가 하직의 인사를 구구절절이 나열하고 (중략)~~~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仲卿은 蘭芝보다 앞서서, 그리고 蘭芝의 자결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약속을 결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蘭芝의 비극적 소식을 접한 이후에도 『뜰 안 나무 밑을 배회하다』며 망설이는 등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달린다. 146)

라고 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劉蘭芝와 焦仲卿의 성격이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으로 이 작품에서 劉蘭芝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 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朱思信은 <刘兰芝形象的典型意义>에서

仲卿, 兰芝夫妇的自杀, 也是兰芝首先提出的。“同是被逼迫 君尔妾亦然 黄泉下相见 勿违今日言”这是兰芝的绝命之词。道出了她为了反抗压迫, 捍卫爱情而断然赴死的坚强决心。

仲卿과 蘭芝 부부의 자살도 蘭芝가 먼저 제의한 것이다. “同是被逼迫 君尔妾亦然 黄泉下相见 勿违今日言” 이것은 蘭芝의 絶命의 말로서, 그녀는 압박에 반항하고, 애정을 지키기 위하여 단연코 죽음으로 향하는 강한 결심을 말한 것이다.147)

라고 하고 있다. 위의 여러 예에서 봤듯이 劉蘭芝는 총명하고 교양 있고, 결단력이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焦仲卿은 蘭芝를 찾아와 “賀卿得高遷(당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축하하오) 磐石方且厚(반석은 반듯하고 두꺼워) 可以卒千年(가히 천년동안 가지만) 蒲葦一時紉(창포와 갈대는 한때는 부드럽고 질기지만) 便作旦夕間(바로 한동안 일

146) 金庠濂, 앞의 논문, p142

147) 《中国古代, 近代文学研究》1981, 21~22 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社, 中 朱思信<刘兰芝形象的典型意义>, 新疆大学学报, 1981年 第1期 78-85页, p89

뿐이오)”라고 비난을 한다. 仲卿은 이런 비난에 그치지 않고 “吾獨向黃泉 (나 혼자 황천으로 갈 것이오)”라고 蘭芝에게 얘기를 한다. 蘭芝는 곧은 성격에 강한 결단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이 句는 위의 焦仲卿이 늘어놓은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句로서 죽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句를 “당신이 그러시겠다면 저도 그러겠어요.”라고 해석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함으로써 “黃泉下相見(황천에서 우리 둘 다시 만나요)”라는 句와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며 그 뒤의 “勿違今日言(오늘의 말을 결코 어기지 마십시오)”이라는 말로 다시 당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恨恨那可論

이 句는 본 논문 부록에 실린 <孔雀東南飛> 303번째 句로 이 부분은 劉蘭芝와 焦仲卿이 서로 황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각자 집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봉건세력을 대표하는 焦母와 劉兄이 꾀박에 더 이상은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죽음의 결심을 하고 있다.

이 句에서는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恨恨”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는 “한스러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金庠濫¹⁴⁸⁾는 이 句에 대하여

“그 아픈 恨이야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金光照¹⁴⁹⁾는

148) 金庠濫, 앞의 논문, p134

149) 金光照, 앞의 논문, p49

“그 아픈 恨이야 이루 말 할 수 나 있을까?”

라고 하고 있다.

이 외에 李浚植¹⁵⁰⁾, 기태완¹⁵¹⁾, 金學主¹⁵²⁾ 등도 거의 金庠濤 와 金光照의 해석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李杏林은 《孔雀东南非》研究¹⁵³⁾에서

极言恨多

한이 많음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李智海¹⁵⁴⁾는

活着的人作死的离别, 心理的愤恨哪里说得尽呢?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음의 이별을 했으니 마음속의 한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으며

李英健, 李克 注編한 郭茂倩 《乐府诗集》¹⁵⁵⁾ 에는

心理的愤恨哪里说得尽呢?

마음속의 한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詩解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詩의 내용을 보면 蘭芝와 焦仲卿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으며 그들의 죽음은 나약함과 절망의 표현이 아니고 봉건제도와 봉건예교에 조금도 타협하지

150)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p114

151) 기태완, 앞의 책, p175

152) 金學主, 앞의 책, p126

153) 李杏林, 앞의 책, p37

154) 李智海, 앞의 책, p20

155) 李英健, 李克 注編, 《郭茂倩, 乐府诗集》, 앞의 책, p228

않는 투쟁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¹⁵⁶⁾ 그들은 당당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슬픔을 안고 사랑의 힘으로 봉건 세력에 항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죽음은 봉건제도에 대한 항거의 승리이며 애정의 승화로 볼 수 있다.

李杏林 编著 《孔雀东南非 研究》¹⁵⁷⁾ 에서는

이 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長歎空房中(빈 방에서 홀로 길게 탄식하네) 作計乃爾立(계획을 세우고 곧 일어나)”句는 그가 劉蘭芝의 殉情을 알고 스스로 동남 쪽 나무 가지에 목을 매었다. 그는 劉蘭芝와 공동 숙원을 완성했고 애정을 승화시켰다.

라고 말하고 있고

陈丹, 陶智의 《孔雀东南飛》中的“严庄”与“恨恨”¹⁵⁸⁾에서는

有的教材将“生人作死别，恨恨那可论”之“恨恨”注为“喷恨到极点”，此注不确。此处“恨恨”应为悲伤，惆怅之义。

어떤 교재는 “生人作死别，恨恨那可论”의 “恨恨”은恨이 극도에 이른 것이라고 주를 달고 있다. 이注는 정확하지 않다. 이곳의 “恨恨”은 마땅히 슬프고 낙담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고 얘기 하고 있으며, 이런 해석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普书·贺循列传》¹⁵⁹⁾에서는

皆出自新邦，朝无知己，居在遐外，志不自营，年时倏忽，而邀无阶绪，实州党愚智所为 恨恨。

모두 스스로 새 나라로 나가니 조정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먼 곳에 있으니 뜻을 맘대로 펼치지 못하고 순식간에 여러 해 지나도 관직에서 업적은 없고 벼슬하는 나라에서 총명함을 우롱당하니 슬프구나.

156) 李杏林, 앞의 책, p29

157) 李杏林, 앞의 책, p58

158) 陈丹, 陶智, <孔雀东南飛中的“严庄”与“恨恨”>, 安徽大学中文系, 语文建设, 2007年 第5期

159) 陈丹, 陶智, 앞의 논문 재인용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恨恨이 슬픔의 뜻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고

《普书·周浚列传》 160)에는

今渡江必全克获，将有何虑？若疑于不济，不可谓智，知而不行，不可谓忠。实鄙州上所以恨恨也。

오늘 강을 건너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장군은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만약 강을 못 건널까 우려한다면 지혜롭다고 말 할 수 없고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충신이라 말 할 수 없다. 이 일은 실로 우리 주 상하 모두가 통탄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의 “恨恨”은 슬픔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谢政伟는 <孔雀东南飞 注释拾补, “恨恨”“行人”“寡妇”>161)에서 “恨恨”이 모두 親友, 情人등이 이별시의 심리, 즉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陆云 《与杨彦明书》 162)에서는

彦先来，相欣喜，便复分别，恨恨不可言。

彦先이 오니 서로가 좋아하는데 다시 이별을 하려하니 슬픈 마음을 말로 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이 있고

萧统 《文选》 卷二九 李陵 《与苏武》 163)에서는

“徘徊蹊路侧，恨恨不得辞”

길가를 배회하는데 슬픈 마음은 말로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으며

160) 陈丹, 陶智, 앞의 논문, 재인용

161) 谢政伟, <孔雀东南飞 注释拾补, “恨恨”“行人”“寡妇”>, 安徽省蚌埠学院, 语文建设, 2008年 第1期 요약

162) 谢政伟, 앞의 논문, 재인용

163) 谢政伟, 앞의 논문, 재인용

蔡鏡浩 《魏晉南北朝詞語例釋》 164)에서는

“恨恨”, 戀戀不捨

“恨恨”은 아쉬움에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로 해석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恨恨”이 “恨”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슬픔”의 뜻으로 사용되는 예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恨恨那可論” 이 句에서의 “恨恨”은 봉건제도와 봉건예교에 당당하게 맞서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사랑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恨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生에서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슬픔, 낙담’하는 모습의 묘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위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句의 해석을 “슬픔과 아쉬움”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Ⅲ. 結論

<孔雀東南飛>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孔雀東南飛> 작품 해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외에도 <孔雀東南飛>에 나타난 漢代 사회의 생활 습속을 고찰, 《孔雀東南飛》의 人物 形象 研究, <孔雀東南飛>의 창작 배경 및 기타, <孔雀東南飛>가 쓰여진 연대 및 成詩 과정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孔雀東南飛>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물들이 難句의 해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難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논문을 쓰기에 앞서 필자가 기존의 해석서들을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論文과 책자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작품을 解釋 하고 있고 <孔雀東南飛>의 文章 흐름을 고려하여 解釋해 놓은 作品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에서 최근에 발행되고 있는 책자들과 論文들을 모아 우리나라 해석본들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164) 謝政偉, 앞의 논문, 재인용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해석들이 서로 다른 句를 여러 군데 발견하게 되었다. 필자는 本稿에서 <孔雀東南飛> 해석 중 학자들이 각각 다르게 해석 하고 있는 부분과 학자들의 논의는 빈번하지 않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해 볼 가치가 있는 句를 難句로 정의하고 작품 중간에 나오는 10句의 難句를 고찰해 보았다.

“結髮共枕席” 句에서의 “結髮”은 劉蘭芝와 焦仲卿이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結髮”을 “성년이 되는 의식”이 아닌 ‘결혼식 날 치러지는 결혼의 禮’로 해석을 시도 해 봤으며, “留待作遺施” 句에서는 “遺施”字를 “남에게 줘 버리세요.”라는 의미가 아닌 ‘선물로 남겨주다’라는 의미로, “好自相扶將” 句에서는 “相”字가 가리키는 인물을 시어머니가 아닌 ‘劉蘭芝’로 보고 해석을 했으며, “舉手長勞勞” 句에서는 “勞勞”를 ‘슬퍼하는 모습’이 아닌 ‘동작을 계속하다.’라는 의미로 풀어 보았다. 그리고 “尋遣丞請還 說有蘭家女” 句에서는 “遣丞”의 주체가 누구인가? “蘭家女”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에 대하여 논 하여 보았고, “諾諾復爾爾” 句에서 “爾爾”字를 “이렇게 합니다.” 라는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예예’라는 대답의 소리로 해석을 시도했으며, “交廣市鮭珍” 句에서는 “교주 광주의 산해진미를 갖추고”라는 지금까지 해석과는 다르게 이 句의 글자에 충실해서 ‘널리 시장에서 산해진미를 갖추게 하니’라는 의미로 풀어 보았으며, “因求假暫歸” 句에서는 “暫”字를 “잠시”의 의미가 아닌 ‘재빠르다, 황급히’ 의미로 해석을 했고, “君爾妾亦然” 句는 “당신이나 저나 다 그렇잖아요.”라는 지금까지의 해석과는 다르게 이 句를 시의 절정 부분 즉 죽음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句로 보고 ‘당신이 그러시겠다면 저도 그러겠어요.’라고 해석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恨恨那可論” 句에서의 恨恨은 劉蘭芝와 焦仲卿이 봉건제도와 봉건예교에 당당하게 맞서서 죽음을 선택했고 죽음을 사랑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恨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生에서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에 대한 ‘슬픔, 낙담’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필자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본 논문을 썼다. 그러나 아직도 <孔雀東南飛>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孔雀東南飛>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① 重疊字 ② 偏義復詞 ③ 一詞多義 (相, 見, 適, 謝, 復, 自, 舉, 應, 做 등) ④ 부부간의 호칭, 그리고 <孔雀東南飛> 탄생 지역의 여러 습관,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언어들과 詩를 연계해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

는 일이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의 내용들을 새로이 정리하여 <孔雀東南飛>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 參考文獻 -

1. 單行本類

- 吳德新,《乐府诗 历史》, 重庆出版社, 2006年3 月
- 李智海,《孔雀东南飞故园拾穗》, 安徽大学出版社, 2008年 5月
- 李英健, 李克 注编, 《郭茂倩, 乐府诗集》, 万卷出版公司, 沈阳市, 2009年3月
- 기태완,《한위육조시선 (한중역대한시선 1)》, 보고사, 2005년 10월
- 金學主,《樂府詩選》, 明文堂, 2002年, 4月
- 罗竹风主编,《漢語大詞典》, 上海世紀出版股份有限公司, 上海辞书出版社 編纂, 2008年 8月 第1版
- 李杏林 编著,《孔雀东南非》研究, 安徽大学出版社, 2009年6月,
- 张永鑫,《汉乐府研究》, 江苏古籍出版社, 1992年 6 月
- 王运熙, 王国安,《汉魏六朝乐府诗评注》, 齐鲁书社, 2000, 10
- 刘学锴, 赵其钧, 周啸天,《历代叙事诗赏析》, 安徽文艺出版社, 2001年 1月
- 서릉(徐陵)역음/ 權赫錫(權赫錫) 옮김,《 옥대신영 》 I (고대 중국의 여성 독자를 위한 사랑의 노래 ,소명출판사, 2006
- 刘允声、彭格人,《古诗文译注》, 中国农业机械出版社, 1981年1版1印
- 邓魁英, 韓兆琦 等,《汉魏南北朝诗选注》, 第455页, 北京出版社, 1981年2月 第1版
- 成百曉 《論語集註》 社團法人 傳統文化研究會, 한국법령정보주식회사, 2009年, 3월 5일

2. 論文類

- 金庠濤, <漢代樂府民歌研究 >, 서울대학교대학원博士學位論文, 19936年 4月
- 李浚植, <先秦兩漢敘事詩研究>, 成均館대학교대학원 博士學位請求論文, 1991년 9월

- 劉承炫, <漢代樂府民謠와 三曹 樂府詩 비교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 安東煥, <孔雀東南飛에 반영된 漢代의 生活習俗>, 중국인문과학 제32호 (2006. 6)
- 金貞順, <孔雀東南飛의 人物 形象 研究>, 大邱 가톨릭 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碩士學位論文, 2004年 2月
- 郭序文, 试解 <孔雀东南飞中的疑节>, 伊犁教育学院学报, 学术期刊, 伊犁教育学院学报, 2004年 第17卷 第4期
- 金光照, <孔雀東南飛 研究 - 作品 解釋에 대한 몇가지 小考 ->, 해군사관학교 연구보고, 제13집 (1980. 8)
- 嚴貴德, <孔雀東南飛 研究>,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1986
- 安正燠, <孔雀東南飛의 ‘孔雀’에 관한 斷想>, 중국소설논총, 제26집 73p ~ 92p 1225-9624
- 李浚植, <孔雀東南飛의 難句 解釋에 관한 考察(2)>, 中語中文學, 제31집 (2002. 12) pp.137-157
- 李浚植, <孔雀東南飛 ‘新婦初來時’ 4句 解釋考> 中國學研究, 제25집 (2003. 9) pp.41-58
- 지세화, <漢代 民間 樂府詩의 敘事性 考察 - 談話(表現)형식으로서 敘述視點形式의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33권 (2004. 6) pp.3-23 발행처 : 한국의국어 대학교 중국문제 연구소
- 李浚植, <孔雀東南飛 六朝創作設 考察 - 研究史 檢討의 관점에서>, 中國文學研究, 2001.6, pp.53-73
- 田寶玉, <中國 敘事詩의 故事 成立 背景 考察>, 1998년 중국어문학논집 pp.25-46
- 王昱新, <孔雀东南飞 注释 商榷>, 中学文史论坛, 贵州文史丛刊, 1996年, 02期
- 方有国, <孔雀东南飞“劳劳”义辨>, 语文建设, 2007年Z1期
- 肖辉, <孔雀东南飞“相”义解>, 铜陵学院, 安徽, 铜陵 244000
- 林廉, <孔雀东南飞的几处 注释>, 语文建设, 1996年第10 期
- 郭序文, 试解 <孔雀东南飞中的疑节>, 伊犁教育学院学报, 新興華僑中學, 廣東, 新

興, 527400, 2004年

陈丹, 陶智, <孔雀东南非中的“严庄”与“恨恨”>, 安徽大学中文系, 语文建设, 2007年 第5期

谢政伟, <孔雀东南非 注释 拾补, “恨恨”“行人”“寡妇”>, 安徽省蚌埠学院, 语文建设 2008年 第1期

田有成, <孔雀东南飞注商(四则)>, 河南省镇平县教师进修学校, 2003年 第 2期

谢政伟, <关于孔雀东南飞的两处 注释 :“奇”“何云”>, 安徽蚌埠学院, 2006年 第10期

IV. 附錄

孔雀東南飛 解釋

1. 孔雀東南飛(공작동남비) : 공작이 동남으로 날다가
2. 五里一徘徊(오리일배회) : 오리에 한 차례 배회 하네
3. 十三能織素(십삼능직소) : 13살에 흰 비단 짤 수 있었고
4. 十四學裁衣(십사학재의) : 14살에 옷 제단 하는 것을 배웠고
5. 十五彈箏篋(십오탄공후) : 15살에 공후를 탔으며
6. 十六誦詩書(십육송시서) : 16살에 시경과 서경을 암송했으며
7. 十七為君婦(십칠위군부) : 17살에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8. 心中常悲苦(심중상비고) : 마음속에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웠어요
9. 君既為府吏(군기위부리) : 당신은 부리가 되시고
10. 守節情不移(수절정불이) : 부리의 법도를 지키며 정에 이끌리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11. 賤妾留空房(천첩류공방) : 저는 빈방에 홀로 남아
12. 相見長日稀(상견장일희) : 오래도록 서로 만나는 날이 드물었지요.
13. 雞鳴入機織(계명입기직) : 닭이 울면 베틀에 들어 비단을 짜느라
14. 夜夜不得息(야야불득식) : 밤마다 쉴 수도 없었습니다
15. 三日斷五匹(삼일단오필) : 삼 일간에 다섯 필의 비단을 끊어도
16. 大人故嫌遲(대인고협지) : 시어머님은 고의로 늦다고 불평하십니다
17. 非為織作遲(비위직작지) : 짜는 것이 늦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18. 君家婦難為(군가부난위) : 당신 집의 며느리 노릇하기가 힘들었지요
19. 妾不堪驅使(첩불감구사) : 저는 어머니의 부림을 감당할 수 없어
20. 徒留無所施(도류무소시) : 공연히 머물러도 쓸모가 없지요
21. 便可白公姥(변가백공모) : 바로 시어머님께 말씀 드려서
22. 及時相遣歸(급시상견귀) : 적당한 때 돌아가게 해 주세요
23. 府吏得聞之(부리득문지) : 부리는 이 말을 듣고

24. 堂上啟阿母(당상계아모) : 방에 들어가 어머니께 말씀을 올리기를
25. 兒已薄祿相(아이박록상) : 제가 본래 박복한 상이나
26. 幸復得此婦(행부득차부) : 다행이 다시 이 아내를 얻어
27. 結髮共枕席(결발공침석) :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같이하는 부부가 되어
28. 黃泉共為友(황천공위우) : 죽을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고
29. 共事二三年(공사이삼년) : 함께 산지 2,3년이니
30. 始爾未為久(시어미위구) :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31. 女行無偏斜(녀행무편사) : 처의 행동거지에 잘못된 점도 없는데
32. 何意致不厚(하의치불후) : 무슨 뜻으로 그렇게 박대하십니까?
33. 阿母謂府吏(아모위부리) : 어머니가 부리에게 말하기를
34. 何乃太區區(하내태구구) :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가
35. 此婦無禮節(차부무례절) : 이 며느리는 예절도 없고
36. 舉動自專由(거동자전유) : 행동도 제 마음대로라서
37. 吾意久懷忿(오의구회분) : 내 마음 속으로 오래도록 분함을 품고 있었다
38. 汝豈得自由(여기득자유) : 네가 어찌 함부로 말하느냐
39. 東家有賢女(동가유현녀) : 동쪽 집안에 어진 규수가 있는데
40. 自名秦羅敷(자명진라부) : 진나부라고 부른다
41. 可憐體無比(가련체무비) : 그 사랑스런 자태는 세상에 비길 바 없어
42. 阿母為汝求(아모위여구) : 이 애미가 너를 위해 구혼해 줄 것이니
43. 便可速遣之(변가속견지) : 속히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44. 遣去慎莫留(견거신막류) : 돌려보내고 머무르게 하지마라
45. 府吏長跪告(부리장래고) : 부리가 무릎을 꿇고 대답하기를
46. 伏惟啟阿母(복유계아모) : 엎드려 어머니께 말씀 드립니다
47. 今若遣此婦(금약견차부) : 지금 만일 이 아내를 보내 버리시면
48. 終老不復取(종로불부취) : 나는 평생토록 다시 장가들지 않겠어요.
49. 阿母得聞之(아모득문지) :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50. 槌床便大怒(추상편대노) : 의자를 치며 크게 노 하였네
51. 小子無所畏(소자무소외) : 어린것이 두려운 것도 없이
52. 何敢助婦語(하감조부어) : 어찌 감히 아내 말만 두둔하는가

53. 吾已失恩義(오이실은의) : 나는 이미 은정을 잃었으니
54. 會不相從許(회불상중허) : 너의 요구에 응하기 않을 것이다
55. 府吏默無聲(부리묵무성) : 부리는 아무 말 못하고
56. 再拜還入戶(재배환입호) : 인사를 하고 자기 방에 돌아와
57. 舉言謂新婦(거언위신부) : 입을 열어 아내에게 말하려니
58. 哽咽不能語(경인불능어) : 목이 매여 말을 할 수가 없다네
59. 我自不驅卿(아자불구경) : 내가 결단코 당신을 쫓아내고자 함이 아니고
60. 逼迫有阿母(핍박유아모) : 어머니가 핍박하는 것이니
61. 卿但暫還家(경단잠환가) : 당신은 잠시만 집에 돌아가 있으시오
62. 吾今且報府(오금차보부) : 나는 지금 관청에 보고해야 될 것이 있소
63. 不久當歸還(불구당귀환) : 오래지 않아 반드시 곧 돌아오겠소
64. 還必相迎取(환필상영취) : 돌아오면 반드시 당신을 부를 것이니
65. 以此下心意(이차하심의) : 이를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주오
66. 慎勿違吾語(신물위오어) : 삼가 내 말을 어기지 마오
67. 新婦謂府吏(신부위부리) : 신부가 부리에게 말하기를
68. 勿復重紛紜(물부중분운) : 다시 번거롭게 하지마세요
69. 往昔初陽歲(왕석초양세) : 재 작년 동짓달에
70. 謝家來貴門(사가래귀문) : 집을 떠나 이 집안에 와서
71. 奉事循公姥(봉사순공모) : 시어머님 받들어 섬겼습니다
72. 進止敢自專(진지감자전) : 행동을 어찌 감히 멋대로 했겠나요?
73. 晝夜勤作息(주야근작식) :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며
74. 伶媵縈苦辛(령빙영고신) : 외롭고 갖은 괴로움 겪었습니다
75. 謂言無罪過(위언무죄과) : 말하자면 아무 잘못도 없으며
76. 供養卒大恩(공양졸대은) : 봉양을 해서 큰 은혜를 갚았는데
77. 仍更被驅遣(잉경피구견) : 그런데도 쫓겨나게 되었으니
78. 何言復來還(하언부래환) : 다시 돌아오라고 어찌 말씀 하시나요?
79. 妾有繡腰襦(첩유수요유) : 저에게 수놓은 저고리가 있는데
80. 葳蕤自生光(위유자생광) : 아름다운 수의 무늬가 빛을 발하지요
81. 紅羅複斗帳(홍라복두장) : 붉은 비단으로 만든 이중의 침대 휘장이 있고

82. 四角垂香囊(사각수향낭) : 네 귀퉁이에는 향주머니가 달려 있고
83. 箱簾六七十(상렴육칠십) : 상자 육칠십개가 있는데
84. 綠碧青絲繩(록벽청사승) : 아롱다롱 푸른 실 장식이라네.
85. 物物各自異(물물각자이) : 물건들이 각각 따로따로
86. 種種在其中(종종재기중) : 그 안에 종류별로 담았지요
87. 人賤物亦鄙(인천물역비) : 사람이 천해지면 그 물건 또한 천하여
88. 不足迎後人(불족영후인) : 뒤에 맞는 부인이 쓰기에는 족하지 않아
89. 留待作遺施(류대작견시) : 당신에게 선물로 남겨 줄 터이니
90. 於今無會因(어금무회인) : 지금부터는 만나지 못한다 해도
91. 時時為安慰(시시위안위) : 때때로 위안을 삼으시며
92. 久久莫相忘(구구막상망) : 오래도록 저를 잊지 말아요!
93. 雞鳴外欲曙(계명의욕서) : 닭이 울고 밖에 날이 밝아오니
94. 新婦起嚴妝(신부기엄장) : 색시는 일어나서 화려한 몸치장을 한다
95. 著我繡袂裙(착아수곁군) : 자수를 놓은 곁치마 입는데도
96. 事事四五通(사사사오통) : 일마다 너댓번씩 반복한다네.
97. 足下躡絲履(족하섭사리) : 발에는 비단 신 신고
98. 頭上玳瑁光(두상대모광) : 머리에 장식한 대모잠이 빛나고
99. 腰若流紈素(요약류환소) : 허리에는 하얀 비단 흐르는 듯 하고
100. 耳著明月璫(이착명월당) : 귀에는 명월 귀고리
101. 指如削蔥根(지여삭총근) : 손가락은 벗겨 놓은 하얀 파 줄기 같고
102. 口如含朱丹(구여함주단) : 입은 붉은 구슬을 머금은 듯하며
103. 纖纖作細步(섬섬작세보) : 종종 잔걸음으로 나아가니
104. 精妙世無雙(정묘세무쌍) : 아름다움은 세상에 다시없다
105. 上堂謝阿母(상당사아모) : 방에 들어가 시어머님께 이별 인사 올리니
106. 阿母怒不止(아모노부지) : 시어머니는 화를 그칠 줄 모르네.
107. 昔作女兒時(석작녀아시) : 지난 어린 시절
108. 生小出野里(생소출야리) :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지라
109. 本自無教訓(본자무교훈) : 본래 배운바 없어
110. 兼愧貴家子(겸괴귀가자) : 당신 자식을 매우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111. 受母錢帛多(수모전백다) : 시어머님으로부터 돈과 비단을 많이 받았지만
112. 不堪母驅使(불감모구사) : 시어머님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113. 今日還家去(금일환가거) : 오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114. 令母勞家裡(령모로가리) : 어머님을 가사일로 고생스럽게 만들게 되었네요.
115. 卻與小姑別(각여소고별) : 물러나와 시누이와 이별하려니
116. 淚落連珠子(루락련주자) : 눈물이 구슬처럼 흘러내리네
117. 新婦初來時(신부초래시) : 내가 시집을 왔을 때
118. 小姑姑扶床(소고시부상) : 시누이는 겨우 침대를 잡고 설 정도였는데
119. 今日被驅遣(금일피구견) : 오늘 저는 친정으로 쫓겨남에
120. 小姑如我長(소고여아장) : 아가씨가 나만큼 키가 자랐으니
121. 勤心養公姥(근심양공모) : 마음을 다해 어머님 봉양하시고
122. 好自相扶將(호자상부장) : 자신의 몸도 잘 보살피십시오
123. 初七及下九(초칠급하구) : 칠월 칠석이나 매달 열 아흐레날
124. 嬉戲莫相忘(희희막상망) : 즐겁게 놀았던 일 잊지 마세요
125. 出門登車去(출문등차거) : 문을 나가 수레 타고 나가며
126. 涕落百餘行(체락백여행) : 한없이 눈물을 흘리네
127. 府吏馬在前(부리마재전) : 부리는 앞에서 말을 타서 가고
128. 新婦車在後(신부거재후) : 신부는 뒤에서 수레를 타고 가네
129. 隱隱何田田(은은하전전) : 덜커덕 덜커덕 수레소리 가슴을 두드리고
130. 俱會大道口(구회대도구) : 둘은 큰 길 입구에서 함께 만나
131. 下馬入車中(하마입차중) : 말에서 내려 수레 속에 들어가
132. 低頭共耳語(저두공이어) : 머리를 낮추어 귓속말을 하네
133. 誓不相隔卿(서불상격경) : 맹세컨데, 나는 그대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니
134. 且暫還家去(차잠환가거) : 잠시 친정에 가 있으시오
135. 吾今且赴府(오금차부부) : 나는 지금 관청에 가야지만
136. 不久當還歸(불구당환귀) : 머지않아 돌아오리라 하면서
137. 誓天不相負(서천불상부) : 하늘에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네.
138. 新婦謂府吏(신부위부리) : 신부가 부리에게 말하기를
139. 感君區區懷(감군구구회) : 당신의 사랑스런 마음에 감동하오니

140. 君既若見錄(군기약견록) : 당신이 만약 절 잊지 않는다면
141. 不久望君來(불구망군래) : 머지않아 당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142. 君當作磐石(군당작반석) : 당신이 반석과 같다면
143. 妾當作蒲葦(첩당작포위) : 저는 창포나 갈대입니다.
144. 蒲葦紉如絲(포위인여사) : 창포와 갈대는 실 같지만 질기고
145. 磐石無轉移(반석무전이) : 반석은 움직이지 않지요
146. 我有親父兄(아유친부형) : 내게는 친오빠가 계시는데
147. 性行暴如雷(성행폭여뢰) : 그 성품은 천둥과 같이 사나워
148. 恐不任我意(공불임아의) : 저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49. 逆以煎我懷(역이전아회) : 제 뜻 거슬러 저를 들볶을 거예요
150. 舉手長勞勞(거수장로로) : 손을 들어 오랫동안 흔들며
151. 二情同依依(이정동의의) : 두 마음 서로 연연한다네.
152. 入門上家堂(입문상가당) : 친정집에 들어가니
153. 進退無顏儀(진퇴무안의) : 오나가나 몸 들 곳 없네
154. 阿母大附掌(아모대부장) : 친정어머니는 크게 손뼉을 치시며
155. 不圖子自歸(불도자자귀) :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가 돌아오다니
156. 十三教汝織(십삼교여직) : 13살 때 길쌈하는 법을 가르쳤고
157. 十四能裁衣(십사능재의) : 14살 때는 옷을 재단을 할 수 있었고
158. 十五彈箜篌(십오탄공후) : 15살 때는 공후 탔고
159. 十六知禮儀(십륙지례의) : 16살 때 예절을 가르쳐서
160. 十七遣汝嫁(십칠견여가) : 17살 때 너를 시집보냈다.
161. 謂言無誓違(위언무서위) : 삼가서 어그러지지 말라 했거늘
162. 汝今無罪過(여금무죄과) : 너는 오늘 잘 못도 없으면서
163. 不迎而自歸(불영이자귀) : 맞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돌아왔느냐
164. 蘭芝慚阿母(난지참아모) : 저 난지는 어머니께 부끄러우나
165. 兒實無罪過(아실무죄과) : 내게는 사실 아무 죄과가 없습니다 하니
166. 阿母大悲摧(아모대비취) : 어머니는 매우 슬퍼 비통해 하셨네.
167. 還家十餘日(환가십여일) : 집에 돌아 온지 십여 일에
168. 縣令遣媒來(현령견매래) : 현령이 중매인을 보내와서

169. 云有第三郎(운유제삼랑) : 말하기를 현령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170. 窈窕世無雙(요조세무쌍) : 의젓함이 세상에 둘도 없으며
171. 年始十八九(년시십팔구) : 나이는 십팔구세이고
172. 便言多令才(편언다령재) : 언변도 좋고, 재능도 많다네
173. 阿母謂阿女(아모위아녀) :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기를
174. 汝可去應之(여가거응지) : 네가 가서 대답하라 하니
175. 阿女銜淚答(아녀함루답) : 딸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기를
176. 蘭芝初還時(난지초환시) : 난지가 집에 돌아올 때
177. 府吏見丁寧(부리견정녕) : 부리가 당부하기를
178. 結誓不別離(결서불별리) :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하였으니
179. 今日違情義(금일위정의) : 오늘 애정과 의리를 어긴다면
180. 恐此事非奇(공차사비기) : 아마도 옳지 못한 일이 될 거예요
181. 自可斷來信(자가단래신) : 중매인의 말을 거절 하는 것이 좋겠다며
182. 徐徐更謂之(서서경위지) : 천천히 말을 하였다
183. 阿母白媒人(아모백매인) : 어머니가 중매인에게 말하기를
184. 貧賤有此女(빈천유차녀) : 빈천한 이 딸이
185. 始適還家門(시적환가문) : 시집갔다가 이제 막 친정으로 돌아왔으니
186. 不堪吏人婦(불감리인부) : 부리의 아내 노릇도 감당 못하였는데
187. 豈合令郎君(기합령랑군) : 어찌 현령님의 아들과 어울리겠습니까?
188. 幸可廣問訊(행가광문신) : 바라건데 널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89. 不得便相許(불득변상허) : 청혼을 받아들 수가 없습니다
190. 媒人去數日(매인거수일) : 중매인이 가고 며칠
191. 尋遣丞請還(심견승청환) : 태수가 군승을 보내어 청혼하게 하였더니
192. 說有蘭家女(설유란가녀) : 난지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193. 丞籍有宦官(승적유환관) : 대대로 벼슬한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194. 云有第五郎(운유제오랑) : 말하기를 다섯째 아들이 있는데
195. 嬌逸未有婚(교일미유혼) : 미남이고 뛰어난 사람이며 아직 미혼이라고
196. 遣丞為媒人(견승위매인) : 군승이 중매인이 되라고
197. 主簿通語言(주부통어언) : 주부가 말을 전 하였습시다

198. 直說太守家(직설태수가) : 태수 댁을 말씀 드리면
199. 有此令郎君(유차령랑군) : 이와 같이 좋은 아들이 있어
200. 既欲結大義(기욕결대의) : 결혼의 대의를 맺고자 하여
201. 故遣來貴門(고견래귀문) : 저를 귀택으로 보내어 오게 되었습니다.
202. 阿母謝媒人(아모사매인) : 어머니가 중매인에게 말하기를
203. 女子先有誓(녀자선유서) : 내 딸이 먼저 맹서한 일이 있어
204. 老姥豈敢言(로모기감언) : 어미가 어찌 그런 말을 하겠소
205. 阿兄得聞之(아형득문지) : 오라버니는 이 말을 듣고서
206. 悵然心中煩(창연심중번) :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생겨서
207. 舉言謂阿妹(거언위아매) : 언성을 높여 동생에게 말한다.
208. 作計何不量(작계하불량) : 어찌 헤아려 보려 하지 않는가
209. 先嫁得府吏(선가득부리) : 먼저는 부리에게 시집갔지만
210. 後嫁得郎君(후가득랑군) : 후에는 태수의 아들에게 시집가게 된다면
211. 否泰如天地(부태여천지) : 좋고 나쁨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고
212. 足以榮汝身(족이영여신) : 너는 영화롭게 될 터인데
213. 不嫁義郎體(불가의랑체) : 그 낭군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214. 其住欲何云(기주욕하운) : 장차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215. 蘭芝仰頭答(난지양두답) : 난지는 고개를 들고 답하기를
216. 理實如兄言(리실여형언) : 이치는 오라버니 말씀과 같지요
217. 謝家事夫婿(사가사부서) : 집을 떠나 시집가서 남편 섬기다가
218. 中道還兄門(중도환형문) : 도중에서 오라버니 집에 돌아 왔으니
219. 處分適兄意(처분적형의) : 처분은 오라버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220. 那得自任專(나득자임전) :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221. 雖與府吏要(수여부리요) : 부리와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222. 渠會永無緣(거회영무연) :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없는 것 같네요
223. 登即相許和(등즉상허화) : 올라가서 서로 허락하셔서
224. 便可作婚姻(변가작혼인) : 곧 바로 혼인을 하자고 해 주십시오
225. 媒人下床去(매인하상거) : 중매인이 평상에서 내려와 가면서
226. 諾諾復爾爾(낙낙부이이) : 예예, 예예 대답하네.

227. 還部白府君(환부백부군) : 관가에 돌아가 태수에게 알리기를
228. 下官奉使命(하관봉사명) : 저가 명령을 받들고
229. 言談大有緣(언담대유연) : 큰 인연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230. 府君得聞之(부군득문지) : 태수가 이 말을 듣고
231. 心中大歡喜(심중대환희) :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232. 視曆復開書(시력부개서) : 책력을 보고 다시 책을 보면서
233. 便利此月內(편리차월내) : 이 달 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234. 六合正相應(육합정상응) : 육합이 서로 아주 잘 맞고
235. 良吉三十日(량길삼십일) : 길일은 삼십 일인데
236. 今已二十七(금이이십칠) : 오늘이 벌써 이십칠 일이니
237. 卿可去成婚(경가거성혼) : 그대는 가서 혼인을 성사 시켜주소
238. 交語連裝束(교어련장속) : 서로 말을 주고받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239. 絡繹如浮雲(락역여부운) : 구름같이 사람들이 오가네.
240. 青雀白鶴舫(청작백곡방) : 청작과 백곡을 그림 그려 장식한 배
241. 四角龍子幡(사각룡자번) : 사각의 용 깃발이
242. 婀娜隨風轉(아나수풍전) : 아름답게 바람 따라 날리고
243. 金車玉作輪(금차옥작륜) : 옥 바퀴 달린 금수레
244. 躑躅青驄馬(적축청총마) : 청총마가 멈칫멈칫
245. 流蘇金縷鞍(류소금루안) : 금색 수실로 장식된 말안장
246. 齋錢三百萬(재전삼백만) : 삼백만을 지참금으로 하였는데
247. 皆用青絲穿(개용청사천) : 모두 푸른 실로 꿰었고
248. 雜綵三百匹(잡채삼백필) : 온갖 비단 삼백 필
249. 交廣市鮭珍(교광시해진) : 널리 시장에서 산해진미를 갖추게 하니
250. 從人四五百(종인사오백) : 따르는 사람이 사오백 인
251. 鬱鬱登郡門(울울등군문) : 때지어 성문을 오르네
252. 阿母謂阿女(아모위아녀) : 어머니가 딸보고 말하기를
253. 適得府君書(적득부군서) : 마침 태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254. 明日來迎汝(명일래영여) : 내일 너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데
255. 何不作衣裳(하불작의상) : 어찌하여 옷도 만들지 않느냐

256. 莫令事不舉(막령사불거)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라
257. 阿女默無聲(아녀묵무성) : 딸이 소리 없이
258. 手巾掩口啼(수건엄구제) :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우는데
259. 淚落便如瀉(루락변여사) : 떨어지는 눈물이 쏟아지듯 흘렀다.
260. 移我琉璃榻(이아류리탑) : 자기의 유리 장식 의자를 옮겨
261. 出置前窗下(출치전창하) : 앞 창문아래 내어 설치하고
262. 左手持刀尺(좌수지도척) : 왼손에 가위와 자를 들고
263. 右手持綾羅(우수지능라) : 오른 손에 비단을 잡았다
264. 朝成繡袂裙(조성수결군) : 아침에 수놓은 비단 겹치마 만들고
265. 晚成單羅衫(만성단라삼) : 저녁에 홑 비단 저고리 만들었네
266. 曖曖日欲暝(엄엄일욕명) : 어둑어둑 해가 저물어져
267. 愁思出門啼(수사출문제) : 서글픈 생각에 문 밖으로 나가 흐느낀다.
268. 府吏聞此變(부리문차변) : 부리가 이 변고를 듣고
269. 因求假暫歸(인구가잠귀) : 휴가를 얻어 쏘살같이 돌아오는데
270. 未至二三里(미지이삼리) : 난지의 집에 이삼 리도 못 미쳐
271. 摧藏馬悲哀(최장마비애) : 애틋한 마음에 말도 슬퍼 하네
272. 新婦識馬聲(신부식마성) : 신부가 말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273. 躡履相逢迎(섭리상봉영) : 신을 신고 맞으러 나아가
274. 悵然遙相望(창연요상망) : 슬퍼하며 멀리 바라보니
275. 知是故人來(지시고인래) : 남편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276. 舉手拍馬鞍(거수박마안) : 손들어 말안장을 치며
277. 嗟歎使心傷(차탄사심상) : 탄식하며 마음 아파 하네
278. 自君別我後(자군별아후) : 당신이 나를 떠난 후 부터
279. 人事不可量(인사불가량) : 사람의 일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법이라
280. 果不如先願(과불여선원) : 결과는 앞서 원했던 바와 달랐고
281. 又非君所詳(우비군소상) : 또 당신에게 상세하게 할 수 없었어요
282. 我有親父母(아유친부모) :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283. 逼迫兼弟兄(핍박겸제형) : 핍박하는 형제도 있어
284. 以我應他人(이아응타인) : 내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하니

285. 君還何所望(군환하소망) : 당신은 무엇을 바라나요.
286. 府吏謂新婦(부리위신부) : 부리가 부인에게 말하기를
287. 賀卿得高遷(하경득고천) : 당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축하 하오
288. 磐石方且厚(반석방차후) : 반석은 반듯하고 두꺼워
289. 可以卒千年(가이졸천년) : 가이 천년동안 가지만
290. 蒲葦一時紉(포위일시인) : 창포와 갈대는 한때는 부드럽고 질기지만
291. 便作旦夕間(변작단석간) : 바로 한 동안 일 뿐이오
292. 卿當日勝貴(경당일승귀) : 그대는 오늘 귀한 몸이 되니
293. 吾獨向黃泉(오독향황천) : 나 혼자 황천으로 갈 것이오
294. 新婦謂府吏(신부위부리) : 신부가 부리에게 말하기를
295. 何意出此言(하의출차언) :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시나요
296. 同是被逼迫(동시피핍박) : 함께 핍박을 받은 것이니
297. 君爾妾亦然(군이첩역연) :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또한 그러겠어요.
298. 黃泉下相見(황천하상견) : 황천에서 만나요
299. 勿違今日言(물위금일언) : 오늘의 말을 결코 어기지 마세요
300. 執手分道去(집수분도거) : 손을 잡아 보고는 길을 갈라서 떠나
301. 各各還家門(각각환가문) :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302. 生人作死別(생인작사별) : 산 사람끼리 죽음의 이별을 하였으니
303. 恨恨那可論(한한나가론) : 슬픈 마음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리오
304. 念與世間辭(념여세간사) : 세상과의 이별을 생각을 하였으니
305. 千萬不復全(천만불부전) : 결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네.
306. 府吏還家去(부리환가거) : 부리가 집에 돌아 가
307. 上堂拜阿母(상당배아모) : 방에 들어 어머니께 절을 하고
308. 今日大風寒(금일대풍한) : 오늘 크게 바람 불고 차가워져
309. 寒風摧樹木(한풍취수목) : 찬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고
310. 嚴霜結庭蘭(엄상결정란) : 된 서리가 뜨락 난초에 맺히고
311. 兒今日冥冥(아금일명명) : 이 아들 오늘 저 세상으로 가면
312. 令母在後單(령모재후단) : 어머니는 뒤에 홀로 남게 되십니다
313. 故作不良計(고작불량계) : 고의로 좋지 못한 계획을 세운 것이니

314. 勿復怨鬼神(물부원귀신) : 다시는 귀신 된 저를 원망하지 마소서
315. 命如南山石(명여남산석) : 수명은 남산의 돌과 같이
316. 四體康且直(사체강차직) : 옥체만강 하옵소서
317. 阿母得聞之(아모득문지) : 어머니가 부리의 이 말을 듣고
318. 零淚應聲落(령루응성락) :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낮추고 대답하는데
319. 汝是大家子(여시대가자) : 너는 곧 대가 집 자식
320. 仕宦於臺閣(사환어대각) : 관청에서 벼슬을 하는데
321. 慎勿為婦死(신물위부사) : 삼가 아내 때문에 죽지 말아라
322. 貴賤情何薄(귀천정하박) : 귀천이 다른데 어찌 박정하다 하겠느냐?
323. 東家有賢女(동가유현녀) : 동쪽 집안에 어진 아가씨 있는데
324. 窈窕艷城郭(요조염성곽) : 정숙하고 아름다워 성 안팎에서 뛰어나니
325. 阿母為汝求(아모위여구) : 어머니가 너를 위해 청혼하고 있으니
326. 便復在旦夕(편부재단석) : 이제 곧 대답이 올 것이다.
327. 府吏再拜還(부리재배환) : 부리는 다시 절하고 돌아가
328. 長歎空房中(장탄공방중) : 빈 방에서 홀로 길게 탄식하네
329. 作計乃爾立(작계내이립) : 계획을 세우고 곧 일어나
330. 轉頭向戶裡(전두향호리) : 머리를 돌려 방문 안을 둘러보노라니
331. 漸見愁煎迫(점견수전박) : 서글픈 마음이 점점 가슴을 짓눌러 온다
332. 其日牛馬嘶(기일우마시) : 결혼하는 날 소와 말이 울고
333. 新婦入青廬(신부입청려) : 신부가 초례청에 들었다네
334. 菴菴黃昏後(암암황혼후) : 날이 저물어진 후
335. 寂寂人定初(적적인정초) : 고요하고 사람들은 잠들어 조용해졌다.
336. 我命絕今日(아명절금일) : 내 목숨이 오늘 끊어지면
337. 魂去尸長留(혼거시장류) : 혼은 떠나고 시신만 오래 남아있으리라
338. 攬裙脫絲履(람군탈사리) : 치마 붙잡고 비단 신 벗어
339. 舉身赴清池(거신부청지) : 몸을 일으켜 맑은 못으로 뛰어든다.
340. 府吏聞此事(부리문차사) : 부리가 이 일을 듣고
341. 心知長別離(심지장별리) : 마음속으로 영원한 이별임을 알고
342. 徘徊庭樹下(배회정수하) : 뜰 나무 아래를 배회하다가

343. 自掛東南枝(자괘동남지) : 스스로 동남 쪽 나무 가지에 목을 매었다
344. 兩家求合葬(량가구합장) : 양가가 서로 합장하기로 하여
345. 合葬華山傍(합장화산방) : 화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346. 東西植松柏(동서치송백) : 동서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고
347. 左右種梧桐(좌우종오동) : 좌우로 오동나무를 심었는데
348. 枝枝相覆蓋(지지사복개) : 가지들이 서로 포개지고
349. 葉葉相交通(엽엽상교통) : 잎들이 서로 연결해 맞닿았다.
350. 中有雙飛鳥(중유쌍비조) : 그 속에 한 쌍의 새가 날아드니
351. 自名為鴛鴦(자명위원앙) : 이름을 원앙이라 하였다
352. 仰頭相向鳴(양두상향명) : 고개 들어 서로 울기를
353. 夜夜達五更(야야달오경) : 밤마다 새벽녘까지 울어댔다
354. 行人駐足聽(행인주족청) : 행인들 발을 멈춰 듣고
355. 寡婦起傍徨(과부기방황) : 과부가 일어나 주위를 서성이게 하였네
356. 多謝後世人(다사후세인) : 후세 사람들이여! 재삼 알리노니
357. 戒之慎勿忘(계지신물망) : 이를 교훈 삼아 삼가 잊지 마소서